

4 2024 VOL. 334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뉴스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Say no to ordinary.

CRETA Alpha 출시



신규 레드 스티치 인테리어



신규 로고 퍼플 램프



신규 블랙 알로이 휠



BOSE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현대 스마트 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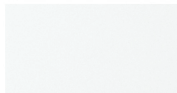
신규 무광 외장 색상



미드나이트 블랙 매트



마그네틱 실버 매트



옵틱 화이트 매트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전담팀 대응
-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를 참조하세요

[한국인 금융상담]

- Sunindo KB Finance : +62 821-2595-5095 왓츠앱 문의
- 신한은행 : 1500881 또는 카카오톡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채널 검색



월간 한인뉴스 4 2024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표지 사진 :

3월2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 첫 날 오전8시,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1층
강당에 마련한 투표장 문을
열자마자 첫 투표자가 된
김 환(수라바야 거주)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한국기업, 인도네시아 산업구조와
지역변화에 큰영향 미쳐”

9

[김재훈의 '세무 TALK']

인도네시아 회계 기준

10

제105주년 삼일절 기념식

12

2024 동남아 남부협의회 정기회의

13

K- NGABUBURIT di KOREA 360

14

코윈, 제11기 출범식



contents

2024. 4. 통권 334호

15

2024년 네트워크 확장과
인적자원 교류확대를 위한 회의

16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0

이슬람의 의미와 금식의 중요성
그리고 르바란
〈안선근〉

24

[여기가 맛집]
Furusato Izakaya
〈황지영〉

27

[디카시 풍경]
꽃의 안부 〈김주명〉

28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8]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32

[특별 인터뷰]
한인유학생1호 장근원 박사

36

[서상영의 한방칼럼 12]
다이어트 3

40

[행복에세이]
아우라지의 푸른 달빛 〈김준규〉

42

[반짝이는 그림책 이야기]
다름을 받아들이는 자세
〈김별님〉

45

재인니 한국건설협회의
황의상회장체제 출범

46

〈한국사: 한반도 통사〉출간

48

코이카, 보고르대학에 차량기증

50

[칼럼] 인도네시아도 주도적으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다 〈조연숙〉

52

[반려동물 랜선집사]
덤칫덤칫, 매일매일 신나는 묘생
〈박정은〉

54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4 〈신성철〉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2)
인도네시아 헌법(4) 〈이승민〉

60

끄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추은진〉

65

IBI대학을 소개합니다

68

생활정보



논설위원 신성철

“한국기업, 인도네시아 산업 구조와 지역 변화에 큰 영향 미쳐”

2023년은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었다. 올해 2024년은 또다른 50년 즉 100년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해이다. 1960년대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생산을 위해 코데코(KODECO, 당시 한국남방개발)를 통한 과감한 해외투자를 감행한다. 이후 50여년이 지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산업구조와 지역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데코 투자 이후 코린도(KORINDO)를 비롯해 많은 한국 목재회사들이 현지에 투자가 이어진다. 이 가운데 코린도는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맞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코린도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발맞춰 성장해온 대표적인 한상기업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 때,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이후 정권을 잡은 수하르토 대통령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969년 4월 1일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기간마다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국가산업을 고도화해 왔다. 이러한 현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맞춰 코린도그룹은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며 사세를 확장했다.

인도네시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I, 1969~1974년)에서 수하르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국내외 투자 촉진을 도모했고, 연평균 7%의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이 기간에 한국 기업들이 원목을 비롯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시기였다. 코데코와 코린도 등 한국 원목개발회사들의 투자가 몰렸고 한국 내 합판산업은 전성기를 구가했다. 당시 한국 기업은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등 오지 밀림에서 과감하게 사업을 펼쳤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II, 1974~1979년)에서 수하르토 정부는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개발 성과의 공정분배 및 고용기회의 확대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외자 봉쇄 조치, 합작투자 및 직접 투자 규제에 대한 우선 분야 설정, 신용 규제를 통한 토착 자본을 보호한다는 정책을 펼쳤고, 이 기간 연평균 6.8%의 성장을 달성했다. 수하르토 정부는 원목수출 규제정책을 진행함에 따라 코데코와 코린도는 현지에 합판공장을 설립했다. 또 한국의 건설사가 현지에서 고속도로와 플랜트 건설을 수주하는 등 현지 진출이 러시를 이루었으며 주로 자바섬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펼치면서 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앞서 10년 간 경제 기반을 다진 인도네시아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Repelita III, 1979~1984년)에서 공업화 기반 확충을 추진했다. 자원개발을 강화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이주정책을 강도 높게 진행한다. 이 기간 약 7.9%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실현한다. 1980년 코린도는 합판을 중동에 수출하기 시작했고 1983년 포르말린과 접착제 공장을 설립해 생산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Repelita IV, 1984~1989년) 기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의 균등분배, 경제 성장 활성화 및 국가 안보의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진한다. 수하르토 정부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비(非)석유가스산업 부문 보다는 노동집약산업과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둔다. 또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산업과 수출지향산업에 해외 투자를 권장한다. 이 기간 코린도는 제지공장과 스포츠화 제조업을 가동한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Repelita V, 1989~1994년) 기간에는 경제 발전 및 부의 균등 분배, 고도 경제성장, 건전하고 역동적인 안정 국가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민간 주도의 성장을 권장한다. 이 기간 코린도는 금융사업부, 배터리 공장 설립, 컨테이너 생산 시작, 파푸아 원목 개발 등 개시한다. 이 기간 한국은 노동집약산업이 대거 인도네시아 투자가 이루어지고 LG전자와 삼성전자 및 초기 기술집약산업 등 다양한 제조업이 진출한다. 앞서 목재와 건설 산업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주로 자바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면, 이 기간에는 자카르타와 수도권 지역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Repelita VI, 1994~1998년) 기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2차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제도약, 투자 촉진을 통한 산업 고도화를 꾀한다. 이 기간 전기·전자, 금속과 화학을 비롯해 자동차 산업 등 기술집약산업이 진출하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해 차기 장기경제개발 계획은 중단된다.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정권 이후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개혁시대를 맞지만 극심한 혼란으로 정치·경제와 사회가 불안정한 시기가 이어졌다. 2004년 최초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해 정국과 치안이 안정되고 대(對)중국 자원수출에 힘입어 연 평균 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시기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2006년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다. 유도요노 정부는 투자법을 크게 개정하고,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덕분에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적 호황을 누린다. 이 기간 한국 기업은 중화학공업, 유통, 금융, 법무법인, 정보통신기술(ICT), 방산 및 한류와 관련된 상품과 콘텐츠 산업 등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이 진출한다. 코린도그룹은 상용차와 윈드밀 생산 등 중공업 분야에 진출한다. 이 기간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노동집약산업이 지역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수도권 외곽 또는 중부자바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다.

이후 양국은 2017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시기에 양국 정부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논의를 재개해 합의를 끌어냈다. 2023년 1월부터 발효된 한-인니 CEPA는 양국의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인 FTA와 비슷한 협정이다. 하지만 CEPA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 투자 등 무역 확대에 무게를 둔 FTA에 비해 정부 간 경제 협력 및 인적·문화적 교류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의 경제협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밸류체인(GVC, Global Value Chain, 가치사슬)이 재편되면서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자원부국이며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GVC의 지각변동의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의적절한 한-인니 CEPA 발효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KCC글라스, 롯데케미칼 등 한국 첨단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사업, 제약·바이오 및 한류 관련 산업 부문에서도 인도네시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2020년 11월 고용창출법(일명 유니버스법)을 제정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호를 활짝 열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경제협력에서 윈윈(win-win)하려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Making Indonesia 4.0)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실현을 위한 로드맵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진행하면서, 한국 등 제조업 선진국을 통한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5대 육성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늘어나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롯데케미칼 등 대규모 투자를 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상호 간 깊은 신뢰를 요구하는 방위산업 협력에도 긴밀하다. 방산 협력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나라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순차적으로 건조했다. 또한 양국은 다목적 전투기(KF-21)를 공동개발하고 있다. 최근 KF-21 분담금 연체와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술 유출 시도 문제로 술렁거리고 있다. 2024년 인도네시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미해결된 사항이 원만히 해결돼 양국 방위산업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끝)



인도네시아 회계 기준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인도네시아 회계 기준은 PSAK (Pernyataan Standar Akuntansi Keuangan)라고 한다. PSAK는 IAI (인도네시아 회계사 협회, Ikatan Akuntan Indonesia)에서 제정 및 개정을 하고 있다. PSAK는 5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PSAK IFRS인데, PSAK Umum이라고도 한다. 상장회사, 금융기관 등 공개 기업들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다.

둘째, PSAK ETAP (Entitas Tanpa Asuransi Publik) 로 비상장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다.

셋째, PSAK Syariah 로 이슬람 율법에 따른 이슬람회계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Syariah Bank 등이 PSAK Syariah 기준을 적용한다.

넷째, PSAK EMKM (Entitas Mikro, Kecil dan Menengah) 인데, 영세 및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PSAK EMKM 보다는 대부분 PSAK ETAP를 준용하고 있다.

다섯째, SAP (Standar Akuntansi Pemerintah) 로 정부회계기준이다.

PSAK는 IAI에서 맡고 있다고 하였는데, IAI와 IAPI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

IAI(Ikatan Akuntan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회계사 협회이다. 1957년에 창설되었고, PSAK 제정 및 개정 업무 이외에도 회계사(CA)시험을 주관하고, CA 기준과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KJA(Kantor Jasa Akuntan)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IAPI (Institut Akuntan Publik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공인회계사 협회이다. IAI에서 독립하여 2007년 인도네시아 공인회계사 협회가 창설되었다. 공인회계사(CPA) 시험 주관, 공인회계사를 위한 기준정립 및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KAP(Kantor Akuntan Publik)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여기서 KJA 와 KAP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KJA(kantor Jasa Akuntan)는 재무부장관령 216/KMK.01/2017에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에는 회계사의 신청 등록절차, 외국인회계사, 회계사 자격증 및 협회, 회계사 자격 시험, 회계사 허가, 회계사 자격 무효, 회계사의 의무, 회계법인의 형태, KJA 허가 및 의무 등 회계사 자격 및 회계법인의 운영 형태 및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KJA는 회계 서비스(Jasa Akuntansi), 관리서비스(Jasa Manajemen), 세무서비스(Jasa Perpajakan) 및 정보 시스템서비스(Jasa System Informasi) 업무를 할 수 있지만, 회계감사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KAP는 상기 업무 이외에도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끝>



제 105주년 삼일절 기념식



지난 3월 1일, 대사관 강당에서 삼일절 기념식이 열렸다.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주최의 이날 기념식에는 이상덕 대사, 이장근 주 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대사와 박재한 한인회장, 이강현 코참회장 등 각계각층의 한인동포가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한 이상덕 대사는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 투쟁이었다”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섰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하였다. 또한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재한 한인회장은 “누구도 보호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용기와 희생으로 지켜냈던 나라를 생각하며 조상의 정신적 유산을 후세대가 기념하는 것은 정체성과 자긍심을 지닌 한인 동포로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인회에서 올해 인도네시아 속 한인역사의 자취를 밟아가는 미래세대와의 역사탐방을 기획한 이유”라고 말했다.

삼일절 노래와 힘찬 만세 삼창으로 식은 마무리 됐다.



이상덕 대사

박재한 한인회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 첫 날인 3월 27일 아침 8시경,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1층 강당 투표장의 모습



박수덕 총영사



김환(수라바야거주)



2024 동남아남부협의회 정기회의

“지난 2월 16일 열린 동남아남부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보여준 평화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 4월 아태지역회의를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동남아남부협의회는 지난 2024년 2월 16일 2024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오프라인 24명, 온라인 24명이 참여한 이번 정기회의는 정제의 간사의 사회로 시작, 국민의례와 이세호 동남아남부협의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수덕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의 통일강의, 동남아남부협의회 간부위원 의장상 수여식,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세호 동남아남부협의회 이세호 협의회장은 이번 정기회에서 “관심”을 가장 중점으로 두어,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관심”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평화통일을 위해 진행될 동남아남부협의회 2024년 사업들도 자문위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특히 아시안컵에서 아쉬운 성적을 거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예로들며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좋은 성과가 있다는 말로 21기 동남아남부협의회 전 자문위원들이 하나 되어 평화통일에 힘쓰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박수덕 총영사는 특강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설문 응답자가 많아진다고 독일과 예멘의 사례에서 얻을수 있는 교훈을 들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열정적인 특강을 진행 하였다.

이어 이세호 협의회장은 2024년 연간 주요사업 계획 발표에서 싱가포르지회, 말레이시아지회 등 온라인으로 참석한 자문위원들에게도 4월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아태지역회의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그리고 이어진 의장상 수여식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활동을 통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가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수지 자문위원과 김은희 자문위원이 의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특히 임수지 자문위원은 수상 소감에서 평화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이러한 열정이 다른 자문위원님들께 공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밝혔다.

(제공: 동남아남부협의회)



<K-NGABUBURIT di KOREA 360>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오는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롯데 몰에 위치한 관계부처 해외홍보관(KOREA 360)에서 추진 협의회 합동 이벤트 <K-NGABUBURIT di KOREA 360> 개막행사를 3월 23일(토)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라마단 기간을 맞아 한국 식품과 문화를 주제로 3월 12일부터 시작된 라마단 기간을 맞아 KOREA 360을 찾는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K-FOOD를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행사의 준비와 운영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가 주관하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총 5개 기관이 마련하였다.

행사 첫날에는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한식용어’ 만들기 대회 및 한식문화상자 체험 전시, 라마단 한식 설문조사 결과발표 등), ▲한국무역협회(한국·인도네시아 퀴즈쇼 with KITA), ▲한국콘텐츠진흥원(‘K-도시락 꾸미기 클래스, BUKA PUASA with KOREA 360 및 K-FOOD GAME 체험), ▲한국관광공사(‘한국 할랄 식당

가이드’ 전시), ▲모든 기관(KOREA 360 포토존 및 SNS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이 날 오후 6시부터는 ‘BUKA PUASA with KOREA 360’에서는 금식해제 시간에 맞춰 행사에 참여한 모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K-FOOD(주먹밥, 잡채, 달걀말이, 호떡, 해물과진, 식혜 등)으로 금식해제를 함께 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29일(금)까지 한식문화상자와 한국 할랄식당 가이드 전시 및 K-FOOD GAME 체험행사는 계속 될 예정이다.

(제공: 한국문화원)



코윈, 제11기 출범식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함께하는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코윈 (KOWIN)은 국내외 거주하는 한인 여성의 연대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과 여성 인적자원 발굴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출범과 함께 설립되었다.

올해 제11기 출범식을 지난 3월 2일 위스마 코린도 홍보관에서 진행하였다.

금번 코윈 11기(코윈 인도네시아지회장 허영순) 출범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대사관의 박수덕 총영사님 그리고 JIKS 교장 선생님과 한글학교의 학당 장님 그리고 2006년 개교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코윈 재인이니 한글학교 교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특히 두 분의 연사를 통해 영성이 궁금하다 와 퍼스널 컬러링의 주제로 풍성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기와 마찬가지로 Network, Education 그리고 Contribution을 주제로 정하고 네트워크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 한 해는 @kowin.indonesia에 게재한 활동 내역을 보면 심기 상담 및 MBTI, 언어발달 강연 및 요리 수업, 다도 수업 및 한글학교 운영 및 교사 연수회를 포함하여 한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로마 테라피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12월에 진행한 바자회 수익 1천만 루피아를 교육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WARUNGIMAGE 기증하기로 하였다.

이번 11기는 현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인도네시아 자무 배우기 및 보자기 수업 그리고 연말에 공동 뮤지컬 개최 등을 기획하고 있다.



2024년 네트워크 확장과 인적자원 교류 확대를 위한 회의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함께하는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코윈 (KOWIN)은 지난 3월 9일(토) 세노빠띠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2층 회의실에서 비영리단체인 와룽 이마지 (Waroeng Imaji)와 함께 2024년 네트워크 확장과 인적자원 교류 확대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본 회의에서 코윈(인도네시아지회장 허영순)은 지난 2023년 12월에 개최한 바자회 수익금(1천만 루피아)을 비영리 단체인 Yayasan Waroeng Imaji에 기증하였다.

상기 비영리 단체는 2019년에 활동을 시작한 단체로 그간 뮤지컬 및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불우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터넷 비용 등을 제공하는 자선 활동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그 회원 수만 1천 명이 넘는 단체이다

중국계 화교 자카르타 시장으로 이름을 알린 아혹 주지사의 전 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극복하는 과정에 귀감을 사며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인 베로니카 탄 (Veronica Tan)을 필두로 활발할 자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코윈과 함께 상반기에 2개의 강연 (자무, 보자기)을 연말에 코윈 재인니 한글학교와 도 콜라보로 진행하고 현지 학생들과 자선 뮤지컬을 한국과 인도네시아 동화를 적절히 교합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코윈은 재능 있는 한인 여성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그 안에서 활동을 넓혀가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제공: 코윈)

<경제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은행, 통화정책위 회의 결과 발표 기준금리, 6% 유지

인도네시아은행(BI)은 BI금리로 알려진 기준금리를 6%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BI는 지난 3월 19~20일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BI금리는 6.0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Deposit Facility, DF)와 대출금리(Lending Facility, LF)도 각각 5.25%와 6.75%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BI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금리 동결이 통화정책의 안정성과 루피아 안정성 강화 및 인플레이션을 $2.5 \pm 1\%$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BI는 식량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BI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성장 친화적인 거시 건전성과 지불시스템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BI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은행 대출/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견지하겠다고 언급했다. BI는 결제 시스템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고 결제 시스템 산업의 구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BI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루피아 안정화, 경제 부문별 우대대출금리(PLR) 투명성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캠페인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다른 국가와 퀴리스(Qris) 결제 연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회복 모멘텀 유효

BI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회복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며,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미국 경제는 내수에 힘입어 성장이 견조할 것이라고 보았다. 인도도 정부와 민간 투자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한편 중국은 재정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이 부진하다고 논평했다.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인한 운송비 상승과 악천후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연장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BI는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다며, 미국 연방기금금리(FFR)가 2024년 하반기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세 탄탄해

BI는 자국 경제와 관련, 가계 소비와 투자에 힘입어 경제 성장세가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여러 지역에서 진행 중인 국가 전략프로젝트(PSN)와 정부 인센티브에 따른 민간 부동산 개발로 인해 건축 투자가 예상을 초과했다.

BI는 가계소비와 비건축투자가 유지되고 있지만 국가 경제 회복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BI는 소비자신뢰지수(CCI), 소매판매지수(RSI),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등 여러 지표들은 낙관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수출은 관광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을 기록했지만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의 수요 감소로 팜유(CPO), 철강, 석탄 등 원자재 수출은 감소했다.

루피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 흐름의 재조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에 루피아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루피아 가치는 2023년 12월 말

과 비교해 2024년 3월에 2.02% 하락했지만, 말레이시아 링깃(3.02%), 한국 원화(3.87%), 태국 바트(5.39%) 보다는 하락 폭이 적었다.

2024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인플레이션은 2.75%(YOY)로,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2.5%±1%에서 유지됐다. 한편 쌀과 고추 가격이 오름에 따라 변동성 식품(VF) 인플레이션은 지난 1월에 7.22%(YOY)에서 2월에 8.47%(YOY)로 상승했다. BI는 2024년 남은 기간에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목표 범위 내에 머물 것으로 확신했다.

결제시스템, 큐리스 거래액 161.51% 증가, 전자화폐 거래액 44.25% 증가

2024년 2월 디지털 뱅킹 거래액은 5,103조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19.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자화폐 거래액은 80조 30억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44.25% 증가했다.

조사 기간에 큐리스 거래액은 전년 대비 161.51% 증가했고, 큐리스 사용자와 가맹점은 각각 4,698만 명과 3,127만 개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에 ATM,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한 카드 기반 결제 금액은 총 566조 6,500억 루피아로 8.81%(yoy) 감소했다.

루피아 통화 관리 측면에서, 2024년 2월 총유통 통화(total currency in circulation)는 1,013조 5천억 루피아로 11.89%(yoy) 증가했다.

BI는 정부와 결제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결제시스템 디지털화 수용을 확대하고 ‘QRIS Jelajah Indonesia’를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경 간 QRIS 결제 연결을 확대할 예정이다.

BI는 라마단과 이돌피트리 축제 기간에 ‘스람비(SERAMBI) 2024’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으로 루피아화의 가용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영기업장관 “국영 건설사 7개에서 3개로 줄일 것”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 장관은 효율을 개선하고 중점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 합병을 통해 국영 건설 회사의 수를 현재 7개에서 3개로 줄이겠다고 지난 3월 21일 밝혔다. 현재 국영건설사는 Hutama Karya, Waskita, PP, Wijaya Karya, Brantas Abipraya, Adhi Karya, 및 Nindya Karya 등 7개이다.

자카르타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에릭 장관은 각각의 기업들이 각자의 전문 부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사별로 주요 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것도 합병 과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Brantas Abipraya, Adhi Karya 및 Nindya Karya는 철도와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에 힘을

합칠 방침이다. Hutama Karya와 Waskita는 고속도로, 국영 건물, 상업용 주택 및 아파트 프로젝트를 처리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Wijaya Karya와 PP는 더 이상 유료 도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항구와 공항 프로젝트에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할 것이다.

에릭 장관은 “국가의 참여”가 필요한 공익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 국영기업 수를 30개로 조정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내각의 임기는 10월에 만료되므로, 에릭 장관은 국영기업 합병과 재편 작업을 이때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이비가짬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1호점 그랜드 오픈

짬뽕 프랜차이즈 ‘이비가짬뽕’ (Ebiga Jj-amppong)이 지난 3월 6일 자카르타 서부에 위치한 대형쇼핑몰 리보몰 뿌리(Lippo Mall Puri)에 인도네시아 매장 1호점을 오픈했다. *현지에서는 이비가짬뽕을 에비가짬뽕으로 부른다.

이비가짬뽕은 대전 토종기업인 (주)이비가푸드가 운영하는 짬뽕전문 브랜드로 한국식 중식업체 최초로 할랄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이비가푸드는 지난 2023년 8월, 인도네시아 F&B 그룹인 보가그룹(Boga Group)과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1호점을 열었다. 이날 오픈 행사에는 꾸스나디 라하르자 보가그룹 회장과 한국의 이비가짬뽕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가그룹 관계자는 이비가짬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맛과 품질이 뛰어나고, 이비가짬뽕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신뢰한다” 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이비가짬뽕의 대표 메뉴는 클래식짬뽕으로 7만 루피아 수준이며, 이외에도 왕갈비짬뽕, 소고기볶음밥, 탕수육, 우동, 간뽕기 등이 있다. 이비가짬뽕은 올해 찌부부르 꼬따위사따, 빈따로 엑스체인지 등지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며, 향후 5년 동안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 50개 매장을 열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외식업을 대표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인 보가그룹(Boga Group)이 운영하는 주요 프랜차이즈는 아래와 같다. △ Bakerzin △ Pepper Lunch △ Boga Catering △ Paradise Dynasty △ Onokabe △ Shaburi △ Kintan Buffet △ Putu Made △ Kimukatsu △ Yakiniku Like △ Ocean 8 △ Sushi Kaiyo △ Loaf Bun.

<정치, 사회>

“올해 건기, 지난해보다 덜 가물 것” 기상청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올해 건기가 지난해에 비해 덜 심할 것이라고 지난 3월 17일 예보했다.

2023년에는 예년보다 길게 지속된 엘니뇨 기상 현상으로 인해 2019년 이후 가장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 농작물 피해와 산불을 악화시켰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하지만 올해는 건기가 지난해만큼 건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불의 심각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탄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산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지난해에는 116만 헥타르 이상의 숲이 불에 타는 등 2019년 이후 가장 심각한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2022년에 발생한 산불 면적의 5배 이상이다. 산불에 취약한 지역은 리아우, 남부 수마트라, 람뽕, 잠비, 그리고 남부 및 중부 칼리만탄이 지목됐다. 이 지역들은 대규모 팜유 농장이 있어서 주

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건기는 예년보다 늦은 5월과 6월에 자바 섬과 칼리만탄, 술라웨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다. 건기는 7월과 8월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부터는 약한 라니냐 기상 패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보통 더 많은 강수량을 가져와 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라니냐 패턴은 작년의 엘니뇨 패턴과는 반대로, 2024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파종 지연으로 인해 올해 초기 쌀 수확량이 부진했지만, 농업 당국은 올해 말까지 식량 생산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수마트라와 자바의 일부 지역은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지난주 수마트라 서부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7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프라보위 “인니 민주주의, 혼란스럽지만 국민의 선택 옳았다”

차기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프라보위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않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점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3월 5일 열린 만다리 투자포럼에서, 프라보위는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비용이 높고 매우 어수선하며 피곤하지만, 국민들의 선택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치른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에서 프라보위는 현재까지 당선이 유력하며, 최종 집계는 3월 2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프라보위는 영어로 연설을 하면서 “나는 다섯 번의 총선에 참여했다. 나를 보시오. 내가 증인이다.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정말 피곤하다. 민

주주의는 매우 어수선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프라보위는 2월 14일 선거에서 인도네시아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았으며, 인도네시아인들이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한다고 격려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 투표율은 평균 80% 수준이었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으로 여겨지는 많은 나라에서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총선거관리위원회(KPU)가 집계한 공식 득표수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현재 프라보위는 58%가 조금 넘는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24%, 간자르 뿌라노워 전 중부자바 주지사는 16%를 기록했다.

신태용의 인도네시아 축구, 베트남에 1-0 신승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이 지난 3월 21일 자카르타 겔라라봉가르노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베트남과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F조 3차전에서 1-0으로 힘겹게 이겼다. 이날 승리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첫 승을 거두며 F조 2위로 올라섰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2위인 인도네시아는 105위 베트남을 맞아 전반전에 다소 고전했으나 후반 7분에 미들필더 에기 마울라나가 골문 앞에서 베트남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하며 소중한 1승을 거뒀다. 골을 넣자, 8만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의 관중들은 물론 함께 관람하던 조코위 대통령은 열광했다.

이로써 신태용 감독은 지난 1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부터 베트남을 상대로 2연속 승리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인도네시아전 패배로 베트남은 F조 1승2패를 기록, 3위로 하락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1무7패를 기록하며 G조 5개 팀 중 최하위로 탈락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오는 26일 베트남 원정을 떠나 F조 4차전을 치른다.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 숫자가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변경돼 아시아에 배정된 출전권도 4.5장에서 8.5장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월드컵에 나가지 못했던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월드컵 본선 진출 열망이 끓어오르고 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의미와 음식의 중요성 그리고 르바란

안선근 박사 (UIN 국립이슬람대학교, UIA 대학 교수)



전세계 인구의 77억명 중 무슬림 신도는 23%를 차지하며 세계 전체 인구 중 무슬림 수가 제일 많다. 무슬림의 영역, 즉 이슬람 종교는 다 출산 문화와 이주민 정책, 아랍 일부 국가의 멸망으로 몇몇의 능력 있는 부유층 무슬림의 경우 유럽이나 아프리카, 미국 등으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각 해당 국가에서 무슬림들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도 인도네시아에서 이제는 이슬람교를 종교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인도네시아 정착을 위한 문화적 접촉의 하나로 종교가 아닌 문화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고 많은 강의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87%가 이슬람 종교인 무슬림이다. 하지만 이웃나라 말레이시아와 같이 국교가 이슬람이 아닌 “다양성 속의 통일 국가” 즉 팡짜실라 건국이념을 모토로 하는 다민족·다언어·다종족의 다양성 속의 하나의 통일 국가로 지칭한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역사의 거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인류의 영원한 벗이 될만한 사랑과 평화의 사도를 발견하고 한없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반면에 비통한 전쟁과 억압의 역사를 보면서 슬픈 마음을 금하지 못하기도 한다. 인류문화사 심층에는 반드시 종교라는 씨앗이 심어져 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저변에는 유·불·선의 3교를 비롯한 인도의 힌두사상 그리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세계 종교의 사상적 뿌리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종교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종교에 대한 이해와 공부에 대한 지식도 그만큼 소중하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금식월 (Rahmadhan)에 대해 알아보자

금식월이면 어김없이 바쁜 일정을 보낸다. 각 교육기관이나 정교, 정부단체 등의 모임에서 금식일에 대한 주요 의미와 이행 그리고 그 목적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의 교육을 많이 해왔다.

이번 호에는 본인이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을 방문,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요지를 정리하고 이슬람의 금식기간이 포함된 라마단의 중요성과 금식 이후 르바란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분위기를 설명해 본다.

금식의 의미는 식·음료 절제 외에 나 자신의 주변에 탐욕의 유혹과 이슬람신도로서 도덕적 위반행위에 대한 이슬람 율법이 금하는 모든 악의 근원으로부터 멀리 한다. 즉 우리 신체의 5가지 주요 기능(Panca Indra) 중 입-언어의 조심, 귀-좋은 소리만 듣고, 눈-좋은 것을 보고, 코-좋은 냄새를 맡고, 감정-좋은 마음을 갖고, 온갖 좋지 않은 행동 등의 몸 가짐을 금식기간에 바른 자세로 전환하고 절제 등을 통한 이슬람 종교 율법의 가르침에 응하라! 하는 더 깊은 의미도 있다.

그리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IMAN), 하나님(Allah)에게 자신의 모든 행동을 통한 신뢰와 인정(Tawakal) 즉, 사후 세계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통해 천국(Surga)으로 갈 수 있다고 무슬림 신도들은 믿고 있다.

이슬람의 주요 5대 교리 중의 하나가 바로 금식 라마단 이슬람 5대 의무 중 4번째 항목이다.

1. 신앙고백 (Syahadat) :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없고 무함맛은 그분의 마지막 예언자이다 (유일신 강조)
2. 예배 (Shalat) : 하루 5번 (파자르, 주흐르, 아샤르, 마그립, 이샤)
3. 자선 또는 선행 (Zakat) : 주변 불우한 이웃들에게 베푸는 절차

4. 금식 (Puasa) : 금식(Puasa/Rahmadhan)을 통한 많은 깨달음의 경지

5. 성지순례 (Haji) : 이슬람 신도라면 의무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메카의 카아바 신전을 통한 성지순례, 성지순례 기간에 못할 경우 단식 절차의 순례인 움러(Umroh)를 다녀옴

이슬람의 신도들은 주요 5대 교리 외에도 6 종류의 믿음이 있다.

1. 유일신 (Allah)
2. 천사들 (Malaikat)
3. 하나님의 성서들 (Kita-kitab Suci)
4. 예언자들 (Nabi & Rosul)
5. 내세 (Hari Akhir)
6. 정명 (Qada & Qadar)

“이슬람 율법을 기초 근거로 한 금식에 대한 올바른 이행과 능률적 사고 행동 진작”

금식을 통해 올바른 변화와 이해, 긍정적 사고 방식을 나 자신부터 변한다는 생각에 이노베이션을 시작하자. 변화의 초점은 우선 사기진작, 리더십 그리고 책임감 즉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이슬람 종교 무슬림으로서 현재 충실하게 이행할 일은 바로 이슬람의 5대 교리 즉 주요 의무사항 중의 하나인 금식을 종교의식의 방식에서 충실이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슬람 신도의 행동이다. 금식의 경우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한 12달 중에 제일 성월의 달로 우선시 하고 있고, 성월의 달을 30일로 계산, 첫 번째 10일 금식이 시작한 일의 기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성월의 초기 의식으로 금식일 시작과 함께 충실히 이행하고, 하루 다섯번 예배 외에도 이프타르 하루 금식일을 깨는 행사 후 마그립 저녁 예배 후 바로 따라위 라는 예배인 11 번 절을 하는 방식의 예배를 금식기간 한 달 동안 하게 된다.

두 번째 10일의 경우는 10일 간의 그간 하나님에게 보인 무모한 행동이나 이슬람 율법을 위한 사례에 대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결으로 가는 올바른 선행의 행동을 말한다. 즉 성월의 러마단 달은 하나님의 시험 고사장이라고 흔히 이슬람에서는 말한다. 금식 성월 한달 동안 충실하게 러마단 금식이행 외에도 낮에는 쿠란을 낭송하고 암기하며, 이슬람 교리 공부를 통한 종교 지식과 믿음을 높이고, 밤에는 기존 하루 다섯번 예배 외에 따라위 특별 예배(Shalat Ijtihad)로 자신의 심적 고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믿음에 대한 만족과 신뢰감 그리고 믿음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10일의 경우 이슬람 율법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사도 무함마트의 선행을 잘 이행함은 물론이고, 성월의 보름달이 비추는 특별한 날을 통하여 금식일 라마단 달에 제일 큰 행운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라마단 금식 기간을 통해 또한 이 기간에는 이슬람 신도들이 흔히 두려워하는 지옥의 길을 피하고, 올바른 종교의식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Allah)께서 배려해 주신 천국으로 가는 제일의 지름길이라고 무슬림 신도들은 믿고 있다.

“Ya ayyuhal ladzina amanu kutiba ‘alaikum ush-shiyamu kama kutiba ‘alalladzina min qablikum la’ allakum tattaqun”

Al-Quran Surah Al-Baqarah ayat 183 쿠란 알바카라 183 문장에 언급한 금식의 의미: 이슬람을 믿든 신도이시여! 금식은 당신들의 의무조항이고, 이미 오래 전부터 당신이 이행하기 전에 이행되었기에 당신도 강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의 길을 가노라!

UIN Sunan Kalijaga 대학교수 아흐맛 자난씨의 금식을 통한 이슬람 율법의 근본 도덕적 행동의 장점은…?

1. 열심히 자신의 역량을 넓혀 일하는 것은 하나님 결으로 가는 믿음의 신뢰이고
2. 지식을 넓혀 나가는 기회이고
3. 하나님 Allah의 지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이니라
 - 책임감 고취
 - 하나님 Allah에게 좀더 다가가는 믿음의 길
 - 다수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길로 인도하노라

금식을 통한 마음의 정서에 대한 선물

- 1) 하나님Allah대한 축복의 감사
- 2)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바른 행동
- 3) 인내심 고취 (인고의 연습)
- 4) 마음의 정서를 가다듬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좀더 하나님 결으로 갈 수 있는 기회
- 5) 금식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더욱 숙지하게 됨
- 6) 마음의 안정과 평화 부드러움을 심취할 수 있는 시간.

금식에 대한 정의가 보다 넓게 알려져 있으나, 금식 관련 소식 정보에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에 내용을 이번호를 통해 나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르바란(Idul- Fitri), 이슬람 최대 명절

르바란 이슬람 명절은 한달 금식월이 끝나고, 이행되는 르바란 이슬람 최대의 명절 행사이다. 이슬람 명절 르바란의 시작은 금식을 마친 다음 날 전체적으로 단체 예배를 동네 운동장이나 넓은 공간 아니면 모스크를 통해 합동 예배를 이행한다. 합동예배를 마치고는 차려 놓은 이슬람 명절의 대표적인 음식 꼬뚜삿(찰밥과 비슷)과 염소사테. 양고기국을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 한국의 설 명절과 같이,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 명절날이라고 보면 된다.이날 명절에는 모두 새 옷을 입고 자



녀들에게는 용돈을 주고, 가족과 함께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는 풍습은 마치 우리 설의 명절 풍습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르바란 명절 전에는 금식 기간 12개월 중 한달 금식기간의 최대의 소비시장이 형성되는데, 이는 각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1년에 한번 르바란 보너스를 받는 달이기도 하다. 르바란에는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고향을 찾기 위해 민족 대이동(Mudik)을 시작하는 데, 자카르타 시내 인구가 거의 텅 비었을 정도로 한산하고 교통도 혼잡하지 않을 정도로 각자 고향을 찾아 떠나는 민족 대이동 현상이 수도 자카르타부터 시작된다.

개중에는 르바란 명절 휴가가 거의 1주에서 2주에 끝나면, 다시 시골 고향에서 자카르타 도시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생각지도 않은 이촌 현상의 일환으로 르바란 휴가를 떠났던 친구들이 고향 친구들 하나 둘 데리고 다시 자카르타에 운집하게 되면서, 한때는 자카르타시 공무원들이 각 버스 버스터미널이나 주요 항구 등, 자카르타 인구밀도의 증가추세를 막기 위한 주요 지역 통제를 했었던 바 있다.

르바란 명절이 끝나면 이슬람 문화의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은 축제 “Halal bi Halal : 할랄 비

할랄” (1년에 있어서의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함께 잘 해보자) 행사이다. 그리고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하면서 두손 모아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고 “Minal Aidizin Wal Faizin: 미날 아이딘 왈 화이진”. “Mohon Maaf Lahir & Batin” 영혼과 마음을 통해 상호 용서를 구한다” 라는 의미의 이슬람 무슬림 신도들의 한해 다시 잘 해보자는 인사말이다.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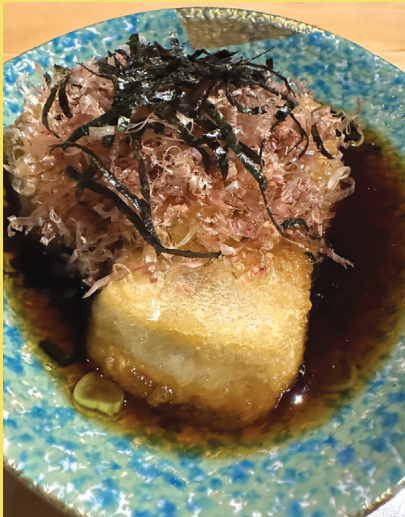
이슬람의 금식과 르바란 이슬람 명절에 대해 이번호를 통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이나 모르는 경우의 경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슬람의 의무사항 중의 하나인 금식과 르바란 이슬람 문화 풍경에 대해 스케치를 해 보았다. 이슬람 문화에 이해와 학습을 통해 이제는 이슬람을 단순 종교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슬람 무슬림신도 대다수의 나라에서 종교가 아닌 문화로 받아들여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융합과 화합의 문화를 이들 무슬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또한 이슬람에서의 비즈니스에 대한 욕망을 찾고, 우리 문화의 장점과 인도네시아 문화의 장점을 통해 새로운 창작 문화의 (Corporate Culture) 융합과 화합의 하모니를 형성해 보자.

—여기가 맛집!—

Furusato Izakaya

황지영 (자카르타 거주)



Agedashi Tofu



Salmon Sashimi



Okonomiyaki Seafood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4월이 돌아왔네요. 저는 잠시 한국에 와있는데요. 한국은 이제 꽃샘추위도 지나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따뜻한 봄 날씨에 접어들었습니다. 화사한 꽃들과 연둣빛 파릇한 새싹들에 희망 넘치고 활기찬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꽃 구경 간 것도 오랜만이라 이런 소소한 일상에도 ‘이제는 마스크 없이 꽃구경이라니!’ ‘이래서 4계절이 다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것도 축복이구나!’ 하며 감사함과 소중함을 느끼는 4월입니다. 이렇게 자연이 온몸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4월은 새로운 시작과도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삶에 의욕이 없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삶의 의미도 되찾고 삶의 활력소와 동기부여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아마 다들 그러실 거 같은데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의욕이나 희망을 잃으셨던 분들, 다시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바라며 오늘은 제가 정말 아끼는 일식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식당은 Furusato Izakaya입니다. Sudirman 쪽에 Orient Hotel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호텔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하기도 아주 편리하실 겁니다. 식당 외관부터 기와로 된 지붕과 목조건축으로 된 구조물들에 일본식 등불들이 달려 있습니다. 일층의 자리들은 대부분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앉는 미닫이문이 있는 다다미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인원이 수용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내부도 모두 목재 인테리어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일본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럼 요리 소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소개드릴 요리는 Agedashi Tofu (70,000 루피아 ++)입니다. 아게다시 토후는 연두 부를 정육면체로 자르고 감자 전분이나 옥수수 전분을 뿌린 뒤 겉이 노릇해질 때까지 튀겨내는 일본식 두부 요리입니다. 그 밑에 옥수, 소유(일본 간장)으로 만든 뜨거운 국물을 붓고 위에 다진 쪽파, 간 무, 가쓰오부시 등을 토폭하는데요. 저는 일식당에 가면 애피타이저로 무조건 아게다도후를 시키는 편입니다. 이 요리야말로, ‘겉바속촉’을 넘어선 ‘겉바속녹(녹는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식감이 정말 좋습니다. 크게 자극적이지 않아서 아이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Salmon Sashimi (103,000 루피아 ++)입니다. 연어 사시미 인데요. 일식집에 왔으니 또 연어 회야말로 참을 수 없잖아요. 사실 저는 장이 예민한 편이라 인도네시아에 있는 식당에서 회를 먹는 것을 좀 꺼리는 편인데요. 정말 신선했습니다. 한 접시에 4조각이라 조금 비싼 면이 있지만 비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한 입에 두꺼운 연어 한 조각을 넣은 지 1초도 안 돼서 다 녹아 없어지는 마술을 경험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Saikoro Steak (315,000 루피아 ++)입니다. 사이코로의 뜻은 주사위인데요. 네모나게 잘라서 나오는 스테이크라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 같습니다. 한국식으로 큐브 스테이크 썬 되겠네요. 이 요리도 가격대가 있는 편이지만 꽃갈빗살 (Short rib)을 사용해 아주 부드러웠고, 반쯤 익혀 철판에 가져와 불 쇼를 한번 더 해주는데 그래서 불 향도 많이나고 육즙도 풍부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Maguro Katsu (115,000 루피아 ++)입니다. 마구로는 참치 다랑어 인데요. 큐카츠, 돈카츠는 많이 접해봤지만 마구로 카츠는 처음이라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참치 회를 아주 살짝만 빵가루에 튀긴 가츠 요리였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다 못해 부서져서 식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토폭 되는 구운 버섯과 소스와 같이 곁들이기에도 좋았습니다. 맥주 안주로도 제격인 요리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Chazuke Salmon (63,000 루피아 ++)입니다. 혹시 오차츠키라고 들어 보셨나요? 쉽게 말해 녹차에 쌀밥을 말아 위에 여러 가지 고명을 얹어 먹는 요리입니다. 사실 저는 외할머니가 일본에서 나고 자라셔서 일본식 요리를 많이 해주는데, 아주 어렸을 때, 밥 먹기 싫어서 도망 다닐 때면 할머니께서 녹차에 밥을 말아 위에 고등어를 올려 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입맛이 없을 때면 그렇게 끼니를 해결하곤 해서 저에게는 소울푸드나 마찬가지로 인데요. 이 요리는 위에 구운 연어가 올라가져 있어 고소하고 따뜻한 한 끼로 제격이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잠깐 가서 식사해야하시는 분들이나 밥 투정 많은 애기들에게 아주 추천하는 요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요리는 Okonomiyaki Seafood (157,000 루피아 ++)입니다. 오코노미야끼를 아시나요? 고기, 해산물, 양배추 같은 야채들을 밀가루 반죽에 버무려 철판에 굽는 한국의 부침개와 비슷한데요. 두껍게 굽고 돈까스 소스와 마요네즈를 뿌리고 가쓰오부시를 뿌려 먹는 요리입니다. 일식집 가면 꼭 시켜 먹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반죽 안에 적 생강초절임이 있어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요. 혹시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미리 주문 전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푸드와 고기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해물파전 느낌으로 시푸드 오코노미야끼를 선호하는 편이라 항상 해물을 선택하지만, 해산물을 싫어하시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고기 선택도 가능하니 걱정 말고 시켜보세요. 이 요리 또한 달짝지근한 소스와 부드러운 반죽, 그리고 탱글탱글한 해산물과 아삭한 양배추들이 어우러져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맥주 안주로 추천 드립니다.

봄이 주는 따뜻한 기운처럼 서로의 안부를 따뜻하게 물어보는 아름다운 4월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화사한 봄처럼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들 즐기시며 화사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5월에 더 맛있는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식당 정보 : <Furusato Izakaya>

음식 종류 : 일식

가격대 : Rp 200,000-5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토~일 오전 11:00- 오후 10:30

월~금 오전 11:00- 오후 3:00,

오후 5:30 - 오후 10:00

주소 : The Orient Hotel Jakarta,

Jalan Jenderal Sudirman. 36 Ground Floor,

Jakarta 10210

※ Google 참고





이미지 목련 by 정래
글 김주명

꽃의 안부

사랑의 자폭으로

꽃이 피고

방생하듯

꽃잎과 이별이 온다면

나는 무성한 잎을 만들어 사랑도

이별도 다 덮은 채, 붉은

당신의 열매를 꼬옥

품으리라



디폰네고로 왕자와 지비전쟁

지난 호에 이어



삐낭섬 (Pulau Pinang) - 당시 족자 술탄국의 귀족들 대부분은 삐낭섬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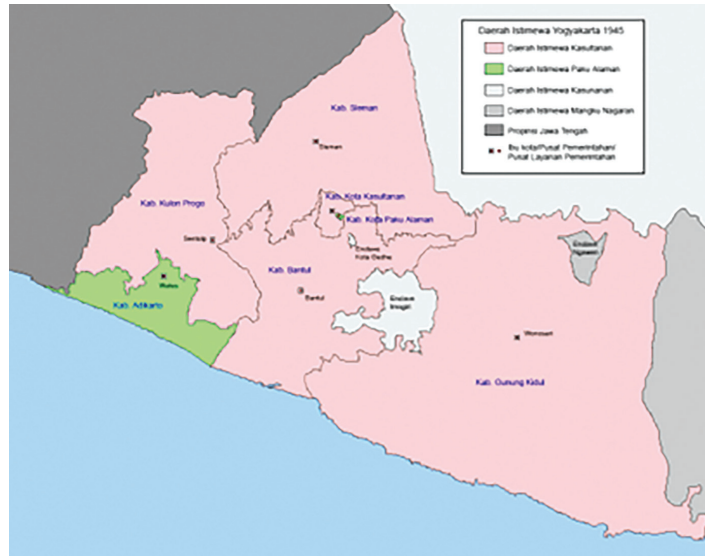
영국군이 끄라톤 중심부를 압박해 오자 술탄 하명꾸부워노 2세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입관을 앞둔 시체처럼 온통 흰색 옷으로 갈아입고 걸어나와 패배를 인정했고 왕과 왕족들은 무기는 물론 걸치고 있던 귀금속과 패물들을 영국군에게 압수당하는 처욕을 겪었습니다. 영국군은 끄라톤 궁전 안의 중요 문서들도 마구잡

이로 압수하여 영국으로 가져갔는데 이때 약탈당한 문서들은 7,000 점에 달합니다. 이 외에도 국보급 보물들과 아름다운 끄리스 단검들, 악기들이 수레에 산더미처럼 담겨 네덜란드 주지사 저택으로 옮겨졌습니다. 영국군의 그런 야만적인 약탈행위를 족자 술탄국의 왕가와 백성들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족자 술탄 하명꾸부워노 2세는 차기 술탄으로 마음에 두었던 아들 망꾸디닝랏 왕자(Pangeran Mangkudiningrat), 영국군 포위망을 넘나들었던 머르타사나 왕자(Pangeran Mertasana)와 함께 스마랑으로 압송되었다가 머나먼 말레이 반도의 빼낭섬(Pulau Penang)으로 유배되고 맙니다.

전투가 끝나고 며칠 후 또 다시 대관식이 열렸습니다. 아디빠티 아눔로서도, 무스타하르로서도,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대관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관식을 갖게 되는 아디빠티 아눔으로서 두 번 모두 자신의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그 빈 자리에 앉게 된 것이 결코 즐거울 리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아버지와 믿음직스럽던 형제들은 모두,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오지로 유배를 떠나 돌아올 기약도 없게 되었고 스빠히 전투 당시 영국군 포격에 어머니마저 잃고서 애도할 틈도 없이 이민족에게 등떠밀려 술탄이 되는 것은 견디기 힘든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끄라톤에서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 중 그가 얼굴이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 위에서 자신이 다시 하명꾸부워노 3세가 되어 술탄의 왕좌에 오르는 것은 그들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단 한번도 자신이 술탄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떠밀려 술탄이 되면 영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될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대관식 내내 얼굴에 웃음 한 점 띄우지 않았습니

다. 라덴 마스 무스타하르, 아니 라덴 마스 온또위료 역시 더욱 큰 상실감에 빠진채 대관식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끄라톤 궁전이 이민족들과 반역자들에게 철저히 유린당하는 동안 자신은 무력까지 동원해 만류하는 수하들에게 둘러싸여 꼼짝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할아버지 하명꾸부워노 2세를 폐위시키는 데에 공이라도 세워 상을 받는 것처럼 아버지의 큰 아들이 대관식에 참석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



족자 술탄국(분홍색) 서남쪽의 빠꾸알라만(녹색) 출처 -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id/c/cf/Peta_seri_DIY_AA_1945.png

대관식에 참석한 래플스 총독대행은 스빠히 전투 승리에 지대한 공헌을 한 노토꾸수모 왕자에게 그 포상으로 족자 술탄국의 서남부 아디까르토(Adikarto) 군의 4,000짜짜(cacah)에 이르는 땅을 봉토로 떼어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빠꾸알라만 봉국(Kadipaten Pakualaman)이 되어 현대까지 이르게 되는데 노토꾸수모 왕자는 간쟁 구스티 빵에란 아디빠티 아리아 빠꾸 알람 1세(Kanjeng Gusti Pangeran Adipati Arya Paku Alam I), 줄여서 빠꾸알람 1세라는 봉건영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의 이름 앞에 붙은 요란한 칭호들은 분명 왕보다 아랫단계였지만 사실상 그 자치구를 배타적으로 통치하는 절대 영주가 된 것입니다.

중국인 우두머리 판진싱(Tan Jin Sing)이란 자도 영국군을 도운 공으로 1,000짜짜의 땅을 받았습니다. 판진싱은 겨두(Kedu 1793-1803)와 족자(1803-1813)의 화교집단 우두머리였는데 하명꾸부워노 2세를 폐위시키려는 영국군과 결탁해 미리 만들어놓은 대나무 사다리들을 공급해 끄라톤의 벽을 타고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이듬해인 1813년 그는 래플스에게서 간쟁 라덴 뚜먼궁 쓰짜디닝랏(Kanjeng Raden Tumenggung Secadiningrat)이란 귀족의 칭호를 받아 나

요꼬의 군수(Bupati Nayoko)가 되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판진싱의 모습을 무스타하르 왕자가 지독히 혐오한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관식에서 무스타하르 역시 번도로 아리오 디포네로고 왕자(Bendara Pangeran Ario Diponegoro)라는 새로운 호칭을 받습니다. 후세가 길이 기억하게 되는 ‘디포네고로 왕자’라는 이름은 이때 매우 모욕적인 상황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27세였습니다. 왕족들은 물론 귀족들도 지위가 변할 때마다 호칭이 변했고 그 역시 훗날 또 다른 호칭을 갖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압둘 하미드’란 아랍식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했던 그를 후세의 인도네시아인들은 ‘디포네고로 왕자’라는 이름으로 선택적인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제2장 끝)

제3장 왕위를 포기하다

하명꾸부워노 3세는 술탄이 된 후 아직도 뒤숭숭한 왕궁의 상황을 수습하기는커녕 매번 식사를 물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노출시키며 국사에 대해 아무런 의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저에는 그가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갖든지 영국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결코 성취할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왕국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인한 충격과 이제 술탄으로서 왕국을 위하기보다는 이민족들에게 휘둘려야만 한다는 현실은 큰 중압감으로 다가왔고 정신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그의 육체는 날로 쇠잔해 꼬챙이처럼 말라갔습니다.

“이럴 때 왕자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술탄 전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번만은 궁전에 남아 아버지와 왕실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디포네고로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하명꾸부워노 3세

사람은 왕가의 먼 친척이자 동부자바의 동쪽 끝 반유마스(Banyumas) 지역 군수 출신인 마스 투멩궁 신두네고로(Mas Tumenggung Sindunegoro)입니다. 그는 시티힝길 대전에서 목이 날아간 다누레조 2세의 후임 재상으로 하명꾸부워노 2세를 도와 정사를 돌보며 끄라톤의 경비병력을 강화하는 등 모든 일에 비범한 수완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저한 전력 차이로 처음부터 승패가 뻔했던 스페히 전투 초반에 바로 옆에 떨어진 영국군 포격으로 큰 부상을 입고 며칠 간 사경을 헤맨 끝에 결국 다리를 절게 되었죠. 끄라톤이 함락되는 것을 맨정신으로 보았다면 당장 칼을 입에 물고 자결했을 사람이었으니 당시 정신을 잃고 있던 것이 어쩌면 다행이었던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누레조 3세 재상이라 불렀습니다.

“몸도 불편하신 재상께서 궂은 일을 모두 맡아주시니 술탄 전하를 대신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신두네고로는 디포네고로의 대답에 헛헛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선왕을 지키지 못한 신료들은 모두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부끄럽게 살아남은 제가 이런 일 하는 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재상이 하명꾸부워노 2세와 같은 강경과임을 영

국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영국으로서도 족자 술탄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끄라톤이 제 기능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의 성향을 문제삼으며 신두네고로를 족자 술탄국의 재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세우고 있었지만 병상에서 일어난 그가 재상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굳이 막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능함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국이 끄라톤을 무릎 꿇린 후 족자 술탄국 정치지형의 변화로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들이 산더미 같았는데 신두네고로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냈습니다.

우선 족자 술탄국이 형식적으로나마 매년 100,000 레알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꾸두(Kedu), 빠찌란(Paciran)의 일부, 자뻬(Japan), 지뻬(Jipang), 그로봉안(Grobongan) 지역을 네덜란드에게 조차하는 계약은 물론, 끄라톤 직할지인 아디까르토(Adikarto) 지역을 영국의 충애를 입은 노트꾸수모 왕자에게 이양한다는 증서 등을 만드는 한편 관련 지역의 영주들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왕국에겐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어쨌든 누군가 관련 행정처리를 매듭지어야 했습니다.

정말 곤혹스러운 부분은 족자 술탄국의 군대를 궁전경호 정도만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끄라톤 경비대의 강력한 저항을 경험했던 영국은 총독부가 용인하는 규모 이상의 군대를 술탄이 가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대신 영국군과 세포이 부대로 궁전 경비대의 주축을 구성했죠. 물론 그들은 경비대를 빙자했지만 그것은 왕실 턱밑에 칼끝을 밀어넣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왕궁경비를 담당했던 부기스족 경비대, 발리 기병대를 비롯한 9,000명의 끄라톤 경비대 병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병사들을 등떠밀어 내모는 낮부끄러운 일까지도 모두 신두네고로 재상의 일이었습니다. 강제 퇴역당한 병사들 상당수가 자바섬 바깥, 식민정부가 소유한 외곽 농장에서 천덕꾸러기처럼 구박받으며 막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의 해산과 축소는 끄라톤뿐 아니라 족자 술탄국 전역에서 네덜란드군의 감시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족자의 부기스 부대 복장 (오늘날 축제행진)

<https://www.flickr.com/photos/prayudi/12116870673>, <https://www.flickr.com/photos/agusyr/4215790206>
수라카르타와 족자의 병사들 <https://hiveminer.com/Tags/soldier%2Cyogyakarta> 참조

한인 유학생 1호 장근원 선생과 한인뉴스와의 특별한 만남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세계화 추세로 해외유학에 대한 문호가 개방되기 전 한국정부가 1970년대 말 국비 유학생제도를 만들어 해외유학제도를 막 시행했을 때부터의 이야기이다. 더욱이 인도네시아로 목적지를 정한 한인학생이 매우 드물었기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자 한 그 뜻과 도전에 대해 들어보자.

Q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사업가 장근원 선생님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본인은 현재 서부자바 TANGERANG (1988) 및 중부자바 Pati (2018) 지역에서 압축성형숯 제조업과 YOGYAKARTA 시에서 병원 의료 사업(1999)을 하고 있습니다.

Q 인도네시아행을 결정했던 계기와 한인최초 국비유학생으로서의 이곳 생활을 떠올린다면?

◆용산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에 4기생으로 입학했다. 1974년에 군입대하여 34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1977년에 다시 3학년에 복학하여 3학년 과정을 수료했다. 1978년 겨울방학을 맞아서 4학년 등록금 준비를 궁리하던 차에 우연히 문학씨클 동우회 이대 친구로부터 인니 장학금 유학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침 4학년 등록금 마련을 위해 영문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라서 주무 부서인 외무부에 찾아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유학신청서를 제출했다. 인도네시아 유학을 결정했던 계기는 평소에 통속적으로 내가 자라오면서 익숙한 고정 관념적인 삶을 벗어나 새롭게 생활방식을 바꿔보고자 하는 의욕이 나의 모든 마음을 흔들었다.

◆대학교 입학 시험에서 계셨던 학과장님, 지도 교수님들과의 면접에서 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질문은 “공업고등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학교 학과 제 1 지망으로 식품공학과, 그리고 제 2, 제3 지망학과를 기계공학과와 화학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원래 지원하고 싶었던 학과는 의예과였지만 공업고등학교 출신은 힘들다고 해서 이공대를 지원했다. 그 중에서 식품공학을 택한 것은 우리 인간의 식생활과 건강에 상당히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분야가 확장범위가 나머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적어낸 것” 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학과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의 얼굴이 다소 싸늘하게 보였다. 두 번째 질문은 학과장님이 하셨는데 식품공학을 전공하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나? 였는데 “왜 바다 생선과 민물공기들은 플랑크톤을 섭취하고 또한 소나 염소, 양은 풀을 먹고 자라는데, 우리 인간은 생선이나 짐승들이 만들어 낸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상관 관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었다.

◆변화를 찾아서 새롭게 도전한다” 가 그 당시 내 가슴을 뛰게 했고, 그 열정이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다.

Q 대학졸업후 지금까지의 족자에 정착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많은 우여곡절 끝에 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끝내고 마침내 박사학위과정에 자동 편입했다. 그 이유는 대학교 창립이래 처음으로 최단 시간안에 학부 졸업을 해서 종교성 장관의 특별 지시하에 졸업과 동시 대학원에 편입했고 또 대학원과정을 이수하면서 규정에 의해 (대학원 정원 22명 중 종합성적 상위 5위 안의 대학원생은 주제 논문 발표없이 직접 박사학위 논문 제출로 대신한다) 박사과정을 밟은 것이다.

◆ 하지만 잠시나마 순탄했던 박사 학위 1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 들어갈 즈음에 인상적이었던 인니 유학생회에 중지부를 찍는 일이 벌어졌다. 유학시절 초기에 한국기업 ‘미원’에서 판매를 관리하는 아르바이트(1978-1981)를 학교강의가 끝난 시간에 틈을 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학생 VISA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법으로 일을 했다는 제보가 중앙정부와 이민국에 신고되면서 그동안 나를 도와 주셨던 양부모님께도 잘못 붙이익이 될까 봐 두려워 그만 학위취득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 당시 나를 도와 주셨던 총장님이 인도네시아 종교성 관리 대학 국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 그렇게 하면서 학위 취득을 포기한 후 자카르타로 넘어가 그동안 알고 지내던 중국 상인들과의 접촉을 가졌다. 나는 열심히 한국제품을 취급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알고 지내던 전자통신기 상회이며 NATIONAL-PANASONIC 과 INTECOM AIPHONE을 취급하는 대리점 Mr. Yaw (PULAU MAS INDAH) HARCO 에게 한국상품을 알게 되면 당신도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한국의 인터폰을 소개해 주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상품은 전혀 진출을 못하고 있었을 때였다. 인터폰을 소개한 것은 그 당시 내가 알고 있는 분야로 성능이나 모델이 뒤지지 않고 가격 경쟁력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샘플 900불로 시작한 시장이 2개월만에 9만불이 되고 4개월이 되던 때에는 30만불로 주문량이 뛰어올랐다. 이렇게 되다 보니 NANTIONAL-PANASONIC 과 AIPHONE 총판 대리점에 문제가 생겼다. 그 당시, 통신장비 수요는 매월 200만 불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시장점유율 7% 점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식 마케팅을 한 고작 3개월만에 시장 점유율 7%까지 파고든 것이 상당히 위협적이었기 때문이다.

◆ 그 후 또 다시 불거진 문제는 본인이 학생VISA를 가지고 불법으로 무역업을 했다는 비밀 제보가 Mr. Yaw가 관리하는 비밀 정보경찰로부터 알게 되었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NATIONAL-PANASONIC 총판 회사인 PT. INDO TIGATAMA사장을 만나라고 했다. 문제는 COMMAX 대리점을 넘겨주든지 아니면 강제 추방을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



대학교 졸업식에서 지금의 부인과 함께



종교성 장관, 장근원, 대학교 총장

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상인 Mr. Yaw와 상의한 후 신변안전을 위해 이 사업을 포기하자는 제안을 받고 사업을 놓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해야만 했다.

◆그후 한국에서 제안을 받은 인도네시아 나무톱밥을 이용한 성형숯이나 WOOD PELLET 생산을 부탁 받고, 그 당시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성형숯을 먼저 제조하자고 결론을 내렸고 1988년에 회사를 설립했다. 그 당시 나의 국적이 한국인이어서 토지의 주인은 지금의 아내 이름으로 하고 주주는 양어머니와 지금의 아내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은행거래는 땅을 담보로 그 당시 2억 루피아 용자를 받아서 공장을 설립했다. 하지만 종류마다 다른 톱밥의 성질을 모르고 겪었던 여러가지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경험해 온 기록물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특허 신청을 했다. 왜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 석탄이 많은데 국가 보조비를 내면서 석유를 연료로 사용할까? 문제는 유연탄이 대부분인 인도네시아 석탄 생산량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유연탄을 무연탄처럼 사용할 수 있는 2중연소 화로와 연탄 디자인’에 관한 특허를 1989년에 신청하고 1992년에 특허인증을 받았다.

◆그 특허 인정을 받아서 인니 국책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1997년 9월 동부자바 GRESIK에 월 1만톤 제 1 생산 공장을 세웠지만 1998년 5월 SOEHARTO 대통령의 하야로 그 사업은 중단되었다.

◆외환위기로 인니사정이 한참 어려울 때가 있었다. 그 당시 성형숯 공장을 TANGERANG, SERANG (KOPASUS 1), KARTASURA (KOPASUS 2), YOGYAKARTA, SENTOLO-WATES, BATANG 등 6개 공장에서 성형숯을 생산하면서 매월 한국으로 45컨테이너를 수출했는데 이 때 얻은 수입과 특허비를 받아서 병원 사업을 구상했다. 원래 꿈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업고등학교를 택한 것이 의사가 되는 길을 막았기에 이곳에서 결혼한 집사람과 동료의사들을 위해 같이 사회사업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종합병원을 설립했다. 하지만 개원한 지 3년 즈음 되던 해에 족자 대지진으로 병원 내부 설비가 훼손되어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다. 지금은 종합병원 C등급으로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연탄 연소장치 특허 출원 인니 Soeharto 대통령께 보고

Q 아내이신 Ova Emilia 현재 UGM 총장님과 자녀들은 어떤 문화 속에 교육하고 가정생활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가족은 딸 2, 아들 2을 두었으며, 지금 현재는 저와 아내 외에 두 딸과 두 아들 그리고 사위와 손자, 손녀해서 총 9식구가 한집에서 살고 있다. 그냥 일상적인 자바 사람들의 문화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오며 자랐다. 아이들은 인도네시아 일반 초등학교를 나왔고, 큰 딸과 사위는 각각 UGM 의대병원에서 피부비뇨기과와 정형 외과 전문의를 하고 있고 둘째

딸은 아직 UGM 상경대 경영대학원 학생이고, 셋째는 장남으로 UGM 의대 일반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막내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다. 모든 가족이 아직 한집에서 모여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족이 흩어져서 살아보지 않았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족자의 지금 집에서 자랐다.



가족 사진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거의 20년을 생활하셨기에 기본적인 한국 예의나 문화풍습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휴가 때마다 한국에 있는 친척들 집에서 같이 한국 음식이나 문화풍습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Q 본인이 스스로 인도네시아사람이라고 느낄 때와 한편으론 한국사람이라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인도네시아에 도착한지 12 번째 되던 1990년도에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그렇게 인니국적을 가지고 살아온 지가 지금까지 34 년이라는시간이 흘렀지만 나 자신 스스로가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느낀 적은 내가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행사를 할 때였고, 또 한편으로 나 스스로가 한국사람이라고 느낄 때는 나 스스로가 부인과 아들 딸들 모두에게 한국의 위대함과 우수성을 알려줄 때이다.

Q (한국인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본인의 위치에서 한국인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지 모르겠지만 굳이 말하자면

- ◆장점이라면 근면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예의를 지킨다.
- ◆단점은 너무 성급하고, 상대방에게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것이고, 사대 주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Q (한국인 인도네시아 진출에 대해) 한국교육과 의료(병원) 부문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싶어합니다. 이들 부분에서 한국계 기업이나 한국인이 움직일 공간이 있나요?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최근 들어 가상공간 플랫폼인 메타버스(Metaverse)가 다양한 곳에 쓰이면서 비대면 시대의 미래교육과의 연결을 생각해보는 기회, 그리고 특히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Q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단순한 본인의 꿈이지만 한방과 양방이 같이 공존하면서 상응하는 ORIENTAL-WESTERN MEDICAL HOSPITAL을 설립하고, 좀 더 체계화된 한방교육을 통해서 한의 과대학을 설립하고 싶은 것이 꿈이다.

한방

韓方

지난 호에 이어

다이어트 (3)

다이어트 이야기

애려서는 핵교가 쪼개 떨어져 뽕박질로 땡졌는데, 산 넘고 냇가 건너 힘든 줄도 모르고 아그 들이랑 땡졌제라

그때는 늘씬했는디 지금은 베러부렀제 엄니가 토요일마다 두부 사오라 심바람 시키면 쪼로로 땡러가서 사가지고 오믄, “오늘도 두부 다 깨졌구먼! 누굴 닮아 가이네가 이리 출랭이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디. 그러도 엄니는 항시 가마솥에서 내가 젤로 좋아하는 고구매 하나 꺼내서 주시던 게 아직도 생생하당께.

지금 생각해보믄 그 시절은 과식도 안해, 하루정일 싸돌아 땡겨, 그러니 살찔 틈이 없었던 것이었제.

중3때 다리가 뿌러져서 2개월 누워만 있는게 몸이 근질근질해서 죽겠는디, 엄니는 “해필 다 쳐도 모내기철에 다쳐가꼬 애를 먹이냐” 끄떡하면 불호령이 떨어졌지라. 그런디 문제는 2 달 사이 살이 띠룩띠룩 찌더니 성인이 될 때까지 빠질 생각을 안하는겨~ 내가 좋아하는 고구매도 살찐다고 못 먹게 하고 그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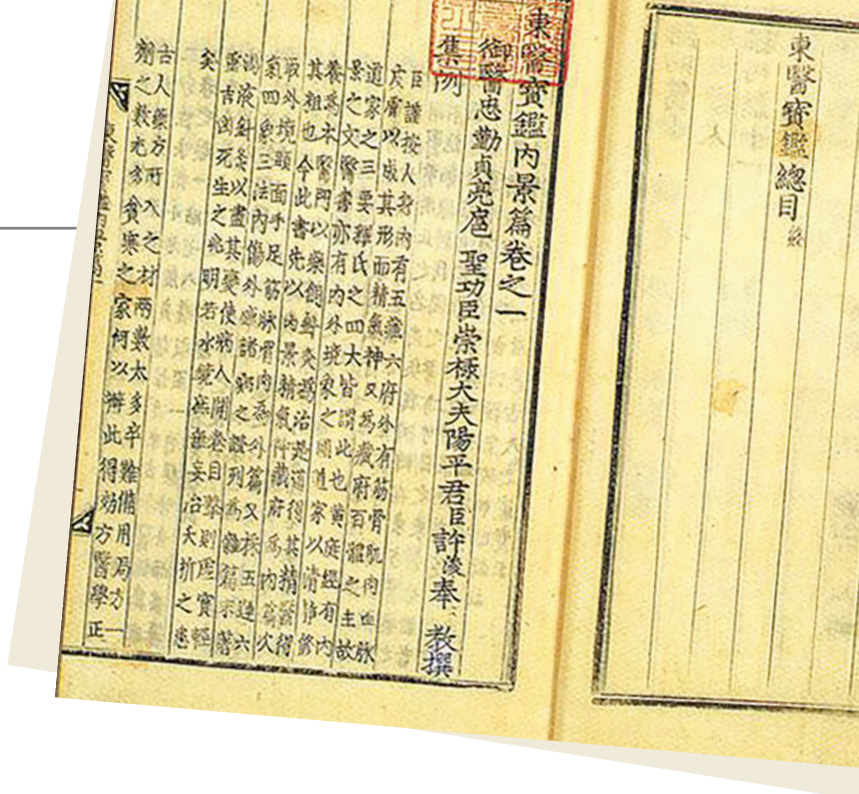
대학은 무~조곤! 서울로 갈 꺼라고 꾸역꾸역 우겨서 방값만 얻어 가꼬는 무작정 서울로 왔더 만, 평소 먹던 보리밥에 나물반찬 말고 빵하고 라면을 많이 먹은게 살이 무진장 찌부렀네. 잔 소리 헐 사람도 없은게 먹고 싶은대로 먹고 퍼질러 자빠져 자고 했는디 하루는 엄니한테 연락 이 와가꼬는 선자리 들어 왔은게 사진 한 장 보내 보거라 하신께, 사진을 보냈더니, “뿔!~ 험다고 돼지가 되어버렸냐, 동네 챙피해서 못 살것다 “허시더니 시집가야 험다고 살빼라고 억척을 부리시더란께.

날은 잡아놨제 엄니는 부하병 나서 뒤져버린다고 귀꾸멍 골아버리도록 애길한께 다이어트를 해야것다 땡을 먹어부렀제. 그때만 혀도 다이어트란 개념도 잘 모르던 땡께 하루에 한 끼만 배부르게 고구마로 배 채우고, 무작정 굶었지라.

엄니 역정내는 게 싫어서 그렇게 험더니 창시에 기름이 빠졌는가 살이 쪼~께 빠지더란 말이여. 훗날 공부허고 알았제, 나가 단식요법을 험다는걸.

영양소, 호르몬, 생체리듬에 대해 암 것도 모름시로 무식했제. 혈기왕성혔고 단기간이라 망정이지 함마터면 몸 다 망쳐 버릴땡 험단께.

선보기 하루전날 시골로 내려갔는디, 엄니가 쪼~만치서 물골을 보시더니 “선보러 가기 전에 암 것도 먹으면 안돼야” 하는 거 아니여, 아따 간만에 시골 내려온께 땡놈에 부뚜막에 냄시가 이리도 고소하다냐. 군침이 도는디 엄니가 “마뺨을 방맹이로 문대버린다” 고 한께 쫄쫄 굶었제.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다음 날 동네 이장 둘째 아들하고 선보러 나갈 참인데, 이게 웬 걸
 어머니가 가마솔에서 고구매 하나를 건내시는 거 아니여!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배고파서 헛것
 이 보이냐 아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구매를 준 것이 맞는 것이여 뭣이여 하고 있는데, “어
 여 먹으라” 나지막하게 어머니 음성이 들리는 것 아니것어.

오빠도 안주고 아빠도 안주고 나한테 주신 고구매, 참말로 달았단게. 어찌나 허기지던지 후딱
 먹어붙고 또 먹고잡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땀땀땀 땀이 그리 재미난지 쳐다본게,
 차마 입이 안떨어 지더만. 땀 갈아서는 10개, 20개도 먹을 수 있겠는데 이때 나가 어머니한테 배
 운 것이 바로 “절제” 라는 것이여.

서울에서 터 잡은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어머니는 올해도 모내기가 한창이시다.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가을에는 꼭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는데, 성격 급하신 어머니
 그사이를 못 참으시고 “손주 얼굴 봐야 쓰것다” 하시더니 이윽고 이 더운 날씨에 서울로 오
 셧다. 큼지막한 보따리를 양손과 머리에 이고 들고 딱 봐도 이래저래 한가득 싸가지고 오셨다.

어머니 이것이 다 뭣이다야? 그동안 모아 놓은 것 한몫에 가지고 왔어야. 이놈에 기지배야 2년이
 지나도록 어찌 코빼기도 안비취냐, 나도 많이 바빴단게, 땀은 몇 번이고 가고 싶었제. 어머니도
 보고 잡고^^
 보따리를 받아드는데 거칠고 딱딱한 굳은살 배인 손이 따뜻하다. 고생하신 어머니 손을 보니 맘
 한켠이 먹먹하다.

어머니는 여러 농산물을 가져다 주셨는데, 모두 손수 농촌에서 재배한 건강식이다. 다이어트 한
 다고 유난들 떠는데, 사실 별 것이 없다.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이다.

(나와 엄마의 대화) 나: 역시나 엄마가 해주는 밥은 최고로 맛있단게. 내가 어려서부터 입만 살았제 혈줄 아는 것은 한 개도 없습서 입이라도 살았은게 이리라도 묵고 사는 거 아니여! 내가 책도 쓰고 강연도 땡기고 얼마나 유명헌지 알기나 허요.

엄마: 그래 너 잘났다. 그래봐야 내 배때기서 나온 것인게 잊지나 말어라.

알것씨라 두말허면 잔소리제.(서로 킬킬킬 웃는다)

터미널에 엄마를 모셔다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간 활기가 돌던 방안도 뭔가 행하고 허전하다. 내일 있을 강연을 준비하다 출출해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냉장고는 딱딱 찻고, 잘 안 쓰던 냄비가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길래. 이상하다 싶어 뚜껑을 열어보았다. 영롱한 색깔의 어려서 보았던 그 고구마가 맛있다.

‘고구매’라 불렀던 고구마. 고구마를 보고 있으면 엄마가 생각난다. 언제 감춰두셨는지 식구들 몰래 항상 챙겨주셨는데, 아들 여섯에 딸 하나라 그러셨을까? 구박하고 모질게 하셔도 부엌에서 고구마 하나 꺼내 주실 때는 언제나 미소를 머금고 계셨던 엄마.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왜 또 보고 싶은 걸까. 헤어질 때 한번 안아볼 걸, 후회가 밀려온다.

난 오늘도 엄마가 가르쳐 주신 절제를 생각하며 고구마로 한 끼를 떼우고 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최애 음식, 엄마가 살아주신 그 맛은 아니지만 지금도 정감 있는 맛있고 향수가 묻어있는 맛이다. 나는 시리즈로 다이어트 책을 발간했고 여러 곳에서 강의 문의가 들어오는 일명 스타 강사다.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본다. 다이어트에 숨겨진 비결이 있나요?

저의 대답은 항상 간단하죠^^

비결은요 “고!구!마!”

엄마가 생각나시는 분들을 유튜브 검색 : 신승훈 비와이 Lullaby(자장가) - 6분짜리 보세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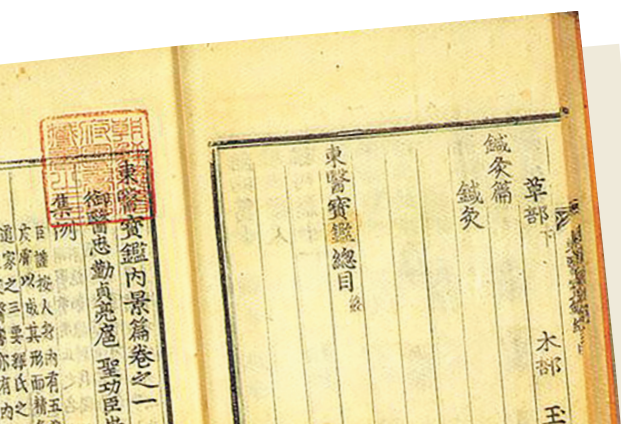
(읽기 전에 유튜브: 외국인 며느리 다투 영상 보시고 읽으시면 더욱 실감납니다)

1) 의지와 노력으로 식욕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식욕조절에 실패하면 자책하고 후회하고 자신을 한심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2) 목표 체중 감량 후 보상 받을 시간이 왔다는 생각: 그 동안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모든 고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3) 운동은 많이 오래하면 좋다는 믿음: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굳어있는 몸을 풀어주고 현재 자신의 체력 정도를 측정하여 시간과 강도를 정하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하여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한 마음을 버리고 조금씩 천천히 강도를 높혀 가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운동효과는 없고 피곤함과 관절,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명심 또 명심.

그러므로 운동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1. 근육량을 늘림으로써 슬림해 보이고 2. 체형을 바로잡아 몸매를 잡아 주며 3. 세포활성화를 통해 노화방지와 활력을 더해주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4) 다이어트는 단기간 반짝 하면 된다:

살만 빠지면 된다는 다이어트는 요요현상을 겪으며 체중이 예전보다 더 증가하는 현상을 만들고, 근감소, 피부노화, 영양소 부족현상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간 다이어트의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다이어트를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5) 안 먹어야 살이 빠진다.

가장 조심해야 할 방법입니다. 먹는 양을 조금 줄여나가거나 평소 즐기던 정크 푸드를 줄이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중감량 목표만을 생각하고 갑작스럽게 식사량을 줄이고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은 오히려 영양 뿐을 체내에 쌓아 놓으려고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조금 섭취하더라도 체내에 비축(비축)하게 되고 체중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살이 찌게 됩니다.(붓기 발생)

한마디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물은 적고, 건강은 해치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6) 살을 빼서 늘씬해야만 인기 있다는 고정관념:

시대마다 미인에 기준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통통한 여자가 미인이라고 여겨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늘씬한 몸매는 남녀불문 하고 경쟁력으로 작용하므로, 자신의 몸매를 가꾸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당당한 모습을 하면 호감도가 높아지고, 자신감 있는 모습은 멋져 보입니다.

꼭 외모만이 인기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외모와 몸매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거나,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다음 호에 계속

韓方



아우라지의 푸른 달빛



김준규(한국문화유산인니지부 회장)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늦은 여름에 강원도 정선을 찾았다. 아우라지에서 얼마 떨어진 여랑리에 민박을 정하고 며칠간의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허름한 시골집이어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손때 묻은 세간살이 하며 알뜰하게 정돈되어있는 시골 농기구들이 알 수 없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했다. 집 주변에는 담장 대신 무궁화나무와 측백나무가 무성히 자라서 마당을 가림막이 하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백발의 할머니가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었다.

“염병! 찾아오는 놈이 한 놈도 없어!”

할머니는 사람 구경 좀 하려고 민박을 시작했노라고 탄식하듯 묻지도 않는 말을 털어놓았다.

정선은 일찍이 탄광지대로 유명하다.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탄광 일을 하는 광부에게 시집을 와서 그렇저렇 어렵게 생계를 꾸리며 남매를 키워 결혼을 시켰고, 환갑이 되어서는 지병으로 고생하던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다고 했다.

정선읍 조동리의 함백 탄좌에서 석탄을 캐던 시절에는 수 만 명의 인구가 불야성을 이루며 삶의 의욕으로 불타던 시절이 있었다 한다. 눈을 현혹하는 노다지의 꿈은 왜 허망하게 한편의 짧은 영화처럼 끝나버리는 것일까?

광부들이 힘든 노동을 하며 소박한 행복을 구가하던 순간도 어느 날, 절망의 검은 폐허 더미에서 눈물지며 아픈 세월을 감내해야 했다. 폐광으로 인하여 환경은 검게 파괴되고 일자리를 잃고 절망하는 주민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대형 카지노 사업이었다. 카지노 사업을 추진함에 가난한 토착 주민들에게 돌아갈 소득이 무엇인가는 알 수 없다.

정선의 국영 카지노는 개장 이래, 또 다른 노다지의 꿈을 안고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문전성시 호황이라고 한다. 일확천금의 꿈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

정선 땅!

그 옛날 이 고장은 저주받은 유배지처럼 척박하고 인적이 드물던 첩첩산중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겹겹이 늘어선 높은 산이요, 계곡의 형세에 순응하며 무심히 흐르는 것은 아우라지의 맑은 시냇물이다. 강가에 검푸르게 병풍을 둘러친 듯 굽이치는 무성한 나무숲! 답답하고 외로울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한나절의 텅 빈 하늘은 무심히도 시야에서 멀어진다. 길을 가던 나그네는 하도 심란하여 공연히 혼자서 흥얼흥얼, 아리아리! 어리어리! 리랑리랑! 하며 콧노래로 시작한 것이 그리도 많고 많은 정선의 노래, 아리랑의 원조가 되었으리란 생각을 해본다. 고려가 멸망하고 왕을 섬기던 선비들이 조선의 건국을 부정하며 도망쳐 나온 곳이 하필이면 이 척박하고 빼고픈 산간 오지라 했다. 500년 고려 왕국의 멸망 과정을 어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선비들은 기울어져 가는 조국의 비운을 한탄하며 이렇게 노래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역수 장마 지려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밀려 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고려의 수도 개성에 밀어닥친 피비린내 나는 혼란의 모습을 개탄하며 두려움과 슬픔을 표현하는 노랫가락이다. 아우라지의 물살은 발왕산에서 발원하여 송천으로 구불구불 흐르는 시내와 대덕산에서 발원하여 골지천으로 흐르는 물이 서로 만나는 지점을 말한다.

시냇물이 서로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면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서로 얼싸안고 빙빙 돌며 어우러지다가 가파른 자갈밭을 지날 때는 자진모리장단처럼 소리를 내며 흐르다가 완만한 개활지에 이르면 평온을 되찾은 듯 길고 느리게 유유히 흘러간다. 물속에서 거친 몸을 부딪치며 구르던 수많은 몽돌은 모진 역사의 아픔을 기억할까.?

짧은 여름은 온데간데없고 벌써 가을이 오려는지 숲속을 스쳐오는 바람이 옷소매에 소슬하다. 산간 지역의 하루해는 불현듯 산꼭대기에서 떠올라 눈 깜짝할 사이 하루를 마감하고 산정으로 숨어버린다. 이윽고 산그늘이 물속에 잠기는 즈음 고적한 밤은 다시 찾아오고 아우라지에 해 맑은 보름달이 떠오른다. 진부한 세월 가난과 외로움에 지친 서민들이 애절하게 부르던 정선 아리랑의 여운이 들려오는 듯 푸른 달빛 아래 여랑리의 섯다리는 쉼 새 없이 물길을 가르며 세월의 징검다리로 남아 ‘아우라지’ 를 지키고 있다.

* 만수산: 고려시대 개성에 소재한 산 이름

다름을 받아들이는 자세



『아주르와 아스마르』
원작 미셸 오슬로, 김주열 옮김, 웅진주니어, 2007
Azur & Asmar (2006)

삼 년 전 인도네시아 행이 결정되고 난 후 제일 먼저 이슬람 문화를 아이들의 수준에서 설명한 책을 구매했다. 기후의 변화는 몸이 적응하면 되는 문제였지만, 종교와 문화의 변화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우려 때문이었다. 한국에서 알 수 있는 이슬람 문화는 참으로 단편적이어서 두려움이 앞섰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에게 말조심, 행동조심을 무척 강조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사람 사는 모습은 어디나 비슷함을 알게 되었지만, 매일 새벽부터 울리는 아잔 소리 같이 아직 여러 부분에서 느껴지는 문화적 이질감을 쉽게 떨쳐낼 수 없다. 특히 요즘같은 라마단 기간에는 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아주르와 아스마르』는 이와 같은 고민과 해결의 실마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표지에서 볼 수 있듯 아름답고 환상적인 그림이 자연스레 책장을 넘기게 만든다. 프랑스로 파랑색을 뜻하는 아주르와 아랍어로 갈색을 뜻하는 아스마르. 두 인물의 옷차림과 피부색, 타고 있는 말의 색깔까지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림에서 독자들은 얼핏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백인 소년 아주르는 검은 머리에 검은 눈을 가진 아랍 출신 소년 아스마르와 함께 그의 어머니인 유모 제난에게서 형제처럼 자라난다. 유모의 고향에서 내려오는 전설인 요정 진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서로 자신이 먼저 요정 진을 구하겠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엄격한 귀족이었던 아주르의 아버지는 유모의 자식과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후 아주르를 도시로 유학 보내고 아스마르 모자는 내 쫓아 버린다. 청년으로 성장한 아주르는 꿈에 그리던 요정 진을 찾아 나서고 아스마르와 재회한다. 그 과정에서 그려지는 찬란한 이슬람 문화의 산물들이 압권이다.



이 작품은 영화 원작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으로 원작자는 프랑스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셸 오슬로 감독이다. 줄거리만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공주나 요정을 구하러 모험을 떠나는 동화나 민담이야기와 비슷해 보인다. 아랍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천일야화가 떠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감독의 전작 <키리쿠와 마녀>, <프린스 앤 프린세스> 등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그림체와 화려하고 선명한 색감, 유머러스한 이야기, 독특한 캐릭터 같은 감독 특유의 감각이 영화에도 그림책에도 그대로 살아있다. 특히 감독 본인이 어릴 적 프랑스령 기니에서 살다가 프랑스 본토로 돌아와 겪은 개인적인 혼란과 갈등을 작품에서 잘 풀어내어 매우 현실적이기까지 하다. 비현실적인 메르헨(민담, 신화전설 등)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그 속에 지극히 현실적인 “서로 다른 문화간 상호이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 뻔하지 않은 깊은 울림을 준다.





화려한 궁전과 아라베스크 문양 등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과 터키 이스탄불을 직접 방문하고 고증을 거쳐 제작되었다. 요정 진이 있는 아름다운 성은 성 소피아 대성당과 블루 모스크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9세기에서 16세기까지 가장 개방적이면서도 눈부신 전성기를 누렸던 이슬람 문명을 보여주하고자 했던 원작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유럽에서 아스마르와 유모가 겪었던 수모를 바다 건너온 아주르 역시 낯선 땅에서 겪는다. 이에 아주르는 눈을 감고 장님처럼 행동한다. 눈을 감으면서 차별을 부르는 여러 모습들은 못 보게 되었지만, 대신 더 중요한 것을 보는 마음의 눈을 떴다. 그리하여 요정 진을 찾는 데 필요한 열쇠를 발견했고, 그리운 유모도 다시 만났다. 얼핏 보면 기독교와 이슬람 혹은 유럽 백인들과 이슬람인들의 갈등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거리의 부랑자 크라푸, 어리지만 똑똑하고 당찬 삼수 사바 공주, 늙은 이방인 현인 야도아 등을 통해 전 세계 언제 어디에나 있는 종교/성/세대/계급/빈부 등 다양한 분열과 화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유모 제nan이 말했듯 무지이다. 사회가 만들어낸 고정된 이미지를 보는 눈은 감고, 오감을 열어 타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백인의 입장에서만 본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내가 누구든, 상대가 누구든 결국 선의를 가지고 타자를 인정하고 환대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상대가 누구든 공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마을 안에 모스크(이슬람), 교회(기독교) 그리고 시나고그(유대교)가 같이 있는 그림책 속 장면은 그런 메시지를 대변하는 듯하다. 결국 다름이, 다양함이 찬란하게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 내니까 말이다. (『아주르와 아스마르의 이슬람 박물관』도 함께 추천한다.)



재인니 한국건설업협의회 황의상 회장 체제 출범

2024년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업협의회 정기모임 열려

“오랜 전통의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업협의회를 실용적인 협의회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황의상 재인니 한국건설업협의회 신임 회장은 지난 3월 2일 보고르 레인보우 골프장에서 열린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열린 2024년 첫 정기모임 행사에서 “이를 위해 재인니 한국건설업협의회 백서 제작과 웹사이트 등을 임기 중 완료하고 가동할 것” 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황 회장은 이어 “협회 회원사의 마케팅을 협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여느 행사와 달리 박재한 재인니 한인회 회장을 비롯해 송창근 전 코참 회장, 신기업 재인니 한인회 명예 회장, 이세호 민주평통 동남아남부지회 회장, 김종현 월드옥타 자카르타지회 회장 등 많은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함께 하는 건설협회! 상생하는 건설 협회!” 로 변화할 것이라는 의지와 분위기를 만들었고, 양종호 아세안대표부 국토교통관과 조성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국토교통관도 참석해 우리 기업을 위해 함께 애쓰겠다고 힘을 보탰다.



박재한 재인니 한인회장은 축사에서 “현재 인도네시아에 2,200여개의 한인기업이 있으며 우리 한인기업 상호 간 반듯하고 활기찬 모습을 협의회를 통해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신기업 재인도네시아 명예 고문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인도네시아 땅에서 우리 한인 건설기업이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고 격려했다.

전민식 고문은 인도네시아 한국건설업협회의 역사에 관해 소개했다.

황 신임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신규 회원사 대표 6명과 신임 지사장 2명을 회원들에게 소개했다. 신규 회원사 대표는 윤범수(ASIA CHEMICAL INDUSTRY 대표이사), 문해정 (MUNS CIPTA BANGUN대표), 박인근(WELLZ-IN INDONESIA대표), 신기업(HANINDO EXPRESS UTAMA 회장), 백승엽(JEONGSUK TECH ABADI대표), 한호윤(P&I INDONESIA대표) 등이다.

신임 지사장은 김동준 지사장(HYUNDAI ENGINEERING)과 이재홍 법인장(LOTTE CONSTRUCTION) 등이다.





인도네시아어로 쓴 첫 한국사 정본 『한국사: 한반도 통사』 출간

『한국사: 한반도 통사』 세미나 UI에서 열려
양승윤 저, 꿈빔스 그라메디아 출간
인도네시아 주요 한국학과와 인도네시아 교육부 및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

최근 출간된 인도네시아어로 쓴 첫 번째 한국사 정본 『한국사: 한반도 통사』 (Sejarah Korea: Semenanjung Korea dari masa ke masa)가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어판 한국사 신간 『한국사: 한반도 통사』는 양승윤 교수가 집필하고, 인도네시아 출판사 ‘꿈빔스 그라메디아’에서 출간했다.

이 책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에게 인도네시아에 대해,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UGM)에서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 가르쳐온 원로학자의 노하우가 집적된 책이다. 양 교수는 족자카르타에 있는 가자마다대학(UGM)에서 한국사를 강의하면서 만든 강의노트를 책으로 출판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한국사 책 출간을 서두르고 이어 자비로 구입해 기증한 이유에 대해, 양승윤 교수는 인도네시아에서 발간된 한국사 자료가 거의 없고 아주 적은 자료마저도 오류가 많아서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양승윤 교수에 따르면, 한국학 전문가이자 UGM 문과대 부학장인 수라이 UGM 교수(Dr. Suray Agung Nugroho/ 한국외대 국제지역학 박사)는 인도네시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코리아 코너’를 방문했다가 북한 김일성 부자 평전을 포함해 그곳에 전시된 자료들이 거의 모두 북한 자료들이라고 알려졌다.

또 다른 이유로 이 책을 감수한 유은규 교사의 조사를 꼽았다. 유 교사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국사 교사로 재임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들이 배우는 한국

역사의 내용이 어떤지 분석하였는데, 인도네시아 고등학교 세계사 책에 한국에 대한 내용이 두 쪽이 안 되고, 그마저도 잘못된 서술이 많았다. 한국사의 감수자 유은규 선생은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JIKS 국사 교사로 재직했고, 2021년 한 해 동안 재인도네시아 한인회가 발간하는 월간지 ‘한인뉴스’에 한국사를 11개월 동안 연재했으며, 현재 서울 문정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유 교사는 “중세 한국사는 중국 제국의 속국으로 전락시켜 놓았고, 현대사의 경우에도 남한과 북한 관계가 잘못 서술된 것도 있었다.”라며, 그 이유를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어로 제대로 번역된 한국사 책이 없어서 일 것으로 보았다.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유은규 교수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읽고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도 따라서 높아질 것”이라며 “양 교수님의 한국사 책을 읽은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한국-인도네시아 양국의 가교역할을 굳건하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 사업가 후원으로 인도네시아 대학 한국학과와 도서관에 배포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양 교수의 제자들이 한국사 책 600권의 구입 비용을 후원해서 UI와 UGM 등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의 한국학과 신입생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 교수는 자카르타 살렘바 소재 국립중앙도서관(Perpustakaan Nasional Republik Indonesia)에 10권을 보내 비치하게 했고, 스나얀 소재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Kementerian Pendidikan, Kebudayaan, Riset, dan Teknologi Republik Indonesia)의 학술자료 도서관에도 10권을 보냈다.

UGM 문과대학(학과장 Achmad Rio Dessiar/ 경북대 한국문학박사)은 책을 구입하는데 자체 예산(400만 루피아)을 사용했고, 다음 학기에는 예산을 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오파 에밀리아 UGM 총장은 한국사 책의 발간사를 썼다. 양승윤 교수는 앞으로 약 5년 간 인도네시아 전국에 산재한 한국학과에 인도네시아어 본 한국사 책을 무상으로 공급하고자 한다며, 뜻 있는 분들의 동참을 희망했다.

『한국사: 한반도 통사』의 장점과 의미

UI 한국학과 재학생 아리(Dewa Ngakan Ari Putra Taman Bali) 씨는 『한국사: 한반도 통사』에 대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역사 전체를 심도있게 분석하면서도 이를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서사로 풀어내며, 특히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긴밀한 상호관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조명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리 씨는 “『한국사: 한반도 통사』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과거가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넓은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전통이 어떻게 국가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형성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겪으며 현재의 모습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유은규 선생은 “(양 교수님이) 인도네시아인에게 한국의 역사도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역사 교사로서 이 책의 출판에 작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감수자로서 유은규 선생은 “외국인이 알아야 할 한국사의 내용은 어디까지일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 교수님 원고에) 약간의 첨삭을 가하고, 설명이 난해하게 된 부분을 쉽게 바꾸는 정도의 작업을 하였다.”라며 “또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꼭 알았으면 하는 범위에서 고민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 책의 의미에 대해, 유은규 선생은 “이 책은 인도네시아어로 쓴 첫 번째 한국사 정보이다”라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우리 말 속담처럼 이 책은 더 다양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전문적인 한국 역사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되고 출판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UI 문과대학, 한국사 리뷰 행사 개최

이 책의 리뷰 행사가 지난 2월 22일 UI 문과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UI 문과대학 소속 한국사 전공자 로스띠뉴 교수(Dr. Rostineu Ros)와 아프리카디 강사(Afriadi. 한국-인도네시아 관계사로 박사논문 작성 중)가 이날 행사를 주관했고, “동해와 독도”(Laut Timur dan Pulau Dokdo)에 대한 토론은 동아시아학 전문가인 이끄 이스와리 라완다(Dr. Ike Iswary Lawanda) 교수가 진행했다. 이날 리뷰 행사 중에는 재학생 대상 리뷰 대회 수상자 1등 아리(Dewa Ngakan Made Ari Putra Taman Bali), 2등 비안다(Vianda Puspita), 3등 비카(Vika Dewanti Putri)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신간 리뷰 행사의 인사말은 한국에 있는 양승윤 교수 대신 자카르타에 있는 한식당 ‘한상’의 문정완 대표가 했다. 문 대표는 한국사 책 구입비를, 양 교수는 UI 한국학과 학생들의 장학금을 후원했다.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에서 국사 교사를 5년 간 역임한 유은규 선생은 인도네시아어 본 한국사를 감수하고, 이 책 말미에 “동해와 독도”(Laut Timur dan Pulau Dokdo) 주제의 에세이를 실은 인연으로, 신간 리뷰 행사에서 같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했다.(끝)



“인도네시아 농업생명과학분야 역량강화 지원” 코이카, 인도네시아 국립보고르농업대학교에 차량 기증

- 코이카, 인도네시아 농업생명과학분야 교육 및 연구 역량강화 지원
- 차량 기증을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과 보고르대학교와의 우호관계 증진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3월 14일 인도네시아 보고르 소재 보고르대학교(IPB University)에 현대 스타리아 차량 1대를 지원하는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번 차량 기증은 우리 정부 무상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고르대학교 농업생명과학센터 역량강화사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정윤길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 소장은 기증식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보고르대학교의 R&D 역량 강화,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인도네시아 농업 분야의 발전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번 차량 지원이 프로젝트의 원활한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리프 사트리아 보고르대학교 총장은 이날 “KOICA와 서울대학교 팀의 헌신과 지원이 교수진, 연구원 및 학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하고 사회에 의미있게 공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감사의 뜻을 밝히며, “지원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고르대학교는 1963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농업분야 최고의 대학으로, 2023년 QS 세계 대학 순위 489위, 세계 농림대학 순위 51위(아세안 1위)로 인도네시아의 농업, 생명과학 및 환경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이카는 동 사업을 통해 연구실험동 신축 및 기존 센터 개보수, 첨단 분석장비 지원, 보고르대학교 교원 대상 석/박사학위과정 및 국내초청연수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 코이카 (KOICA · 한국국제협력단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위하여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국별 프로그램(프로젝트/개발컨설팅), 글로벌 프로그램(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양성사업, 글로벌연수, 국제기구협력, 민관협력사업), 인도적 지원(재난복구지원, 긴급구호 등),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개발협력 기관이다.

(제공: 코이카)





제 2 회 《너머》 신인문단학상



diasporabook.or.kr

2024. 3. 1.(금) ~ 6. 30.(일)

응모자격

- 한국 문단 내 등단 이력이 없는 해외 거주 한국인 및 국내외 거주 외국인

응모 부문 및 분량

부문	분량	
단편 소설	1편	
시	5편	
수필 or 논픽션	수필 2편	논픽션 1편

시상 내역

- 부문별 1인 / 상금 각 500만원 수여

응모방법

- 이메일 접수(review@klti.or.kr)

제출서류

- 신청서 양식 1부, 응모원고 1부
*신청서 양식: 공지문 내 다운로드 가능(상단 QR 참고)

접수마감

- 2024. 6. 30.(일) 18:00 KST

결과발표

- 2024. 9. 2.(월) 예정
*공지사항 게재 및 수상자 개별 통보

시상식

- 2024. 11. 개최 예정
* 해외 수상자는 시상식 참석비용 지원

문의처

- 한국문학번역원 콘텐츠전략팀(review@klti.or.kr)



[칼럼] 인도네시아도 주도적으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다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2001년 인도네시아에서 첫 한국 드라마가 방송된 이래, K-POP, 한국음식, 예능 등 한류 콘텐츠가 20년 이상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주인공이 사용한 물건들을 구입하거나 K-POP 댄스를 따라 하던 일방적인 수용이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인들은 한국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자카르타 롯데몰에서는 주말이면 K-POP 팬들이 모여서 K-POP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구입한다. 자카르타 만중바랏 지역에 위치한 이온몰(Ieon Mall)에 있는 K-POP 댄스 스튜디오에서는 시간당 강습료 8만 루피아 정도를 내고 K-POP 댄스 중 한두 동작을 1시간 가량 배우고 짧은 동영상 찍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쇼핑몰에서 놀이기구를 타거나 영화를 보듯이 잠시 K-POP 댄스를 배울 수 있게 상품화한 것.

2024년 대선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치 왕조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정치는 이데올로기 경쟁인데 감정싸움으로 생각한다면 K-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 며 K-드라마를 언급했다. 간자르 후보는 본인의 인기가 K-POP 스타만큼 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의 지지자들은 ‘아니스 버블’ (아니스@aniesbubble)이라는 엑스(구 트위터) 팬계정을 중심으로 아니스를 홍보하는 트위터와 틱톡 게시물과 라이브 방송 그리고 커피트럭 같은 한류 팬덤 문화를 적극 활용했다. 대선 후보들조차 한류를 언급해야 할 만큼 한류 현상이 인도네시아 사람의 생활에 스며들었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류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류는 고속 성장 단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최경희 연구교수는 ‘인도네시아 한류의 수용과 수행에 나타난 문화 경제적 상호작용 연구’ 라는 논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한류가 대중적 인기를 끌면서 고속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보았다. 한류현황지수와 한류심리지수로 구성된 한류지수가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2015년 이래 계속 조사되었는데,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계속 보이면서, 한류의 대중적 인기와 함께 고속 성장의 단계를 보여 주고 있다.

2016년 이후 단 6년 만에 문화콘텐츠를 접촉하는 미디어 수단이 전통적인 TV에서 온라인과 소셜미디어(SNS)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인이 스스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용자로서의 주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류가 인기를 지속하고 성장하는 이유

최 박사는 한류 콘텐츠 자체의 우수성과 한국 측의 확산 노력과 함께 인도네시아가 내적인 변화의 단계라는 점을 주목했다. 인도네시아는 1999년부터 국가체제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개혁 시대를 맞이했다. 더 자유롭고 더 민주적인 사회로의 개혁을 원하는 열망은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또 민영 방송사가 증가하면서 ‘검증된 해외콘텐츠’ 를 수입해 방영했는데, 2001년 한국 드라마의 첫 방송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냈다. 또 IMF 이후 매우 어려운 인도네시아 경제 상황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진출하고, 대회

기간 내내 거리응원을 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면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인에 게 매우 매력적인 나라로 다가왔다. 2006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도 한류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창조경제' 정책은 가장 뚜렷한 한류 수용 전략

인도네시아는 창조경제 전략을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전략으로 선택하고,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디지털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공연예술 분야 증진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인도네시아에서 한류 콘텐츠가 지속해서 확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바탕이 됐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2013년 한국과 '창조산업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창조경제 분야에서 협업, 교류와 투자 등을 통해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MZ세대와 무슬림과 한류가 만나서 이루는 상호작용

인도네시아 MZ세대와 Post-Z세대와 한류가 글로벌 문화현상으로 주목을 받고 변모하는 시점에서 글로벌화와 민주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한류를 통해 '자기개성'을 발견하고 '자기개발의 수단으로서의 한류'를 체험한다. 최경희 박사는 이러한 경험이 새로운 인도네시아 청년 무슬림 세대의 시대성을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무슬림 여성들은 종교와 취미, 종교와 엔터테인먼트를 구별하여 인식하는 태도를 보인다. K-POP 커버댄스에 참여하는 무슬림 여성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종교성'과 연관 짓지 않고, 오히려 세속화가 아닌 '자아실현'과 '더 나은 가치'에 대한 욕구이며, 그 '세계성'에 참여하는 통로로 K-POP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했다.

한류, 다양성과 이슬람 가치 사이에서

인도네시아는 건국 이래로 문화다양성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인 특성이 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한류와 이슬람적 가치가 상호작용해 만들어지는 문화적 혼종성을 발전시키는 요소로는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이 모두 공감하는 "아시아라는 정체성", "다양한 종족(민족)성을 인정하는 인식들" 그리고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는 지역 소비자들의 주도성"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비해, "종교와 종족에 대한 편파 인식 또는 차별적인 인식" 등은 문화적 혼종성을 생성하는 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했다. 최 박사는 인도네시아에서의 한류는 현재 문화다양성을 지향하는 가치와 이슬람 가치 사이에 존재한다며, 인도네시아가 문화다양성 사회로 유지 확대되는 데 한류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다만 이것조차 한류를 수용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선택과 실천의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박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한류 콘텐츠가 인종과 젠더, 지역과 계층 문제에 대해서 풍부하고 성숙한 인식이 장착된 콘텐츠로 성장하고 문화다양성을 수용하는 글로벌 문화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했다. [끝]



똘치똘치, 매일매일 신나는 묘생

- 이름 : 마농
- 나이 : 2023년 6월20일생(9개월, female)
- 묘종 : 랙돌
- 성격 : 중전같은 귀품에 외국적인 고풍미

마농이 자랑!



상도 받았더랬죠!




오빠 학교 가지 마~~



엄마 나 간식 안 주꾸야? 이래두 안 주꾸야?

작은 집사: 민성 & 민지(ACS Jakarta G8&G7)
큰 집사: 박정은(찌부브르 거주)

 luzzu_manon



랙돌(ragdoll)은 ‘봉제인형’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랙돌을 안아 올리면 몸에 힘을 빼고 축 늘어져 사람에게 몸을 맡기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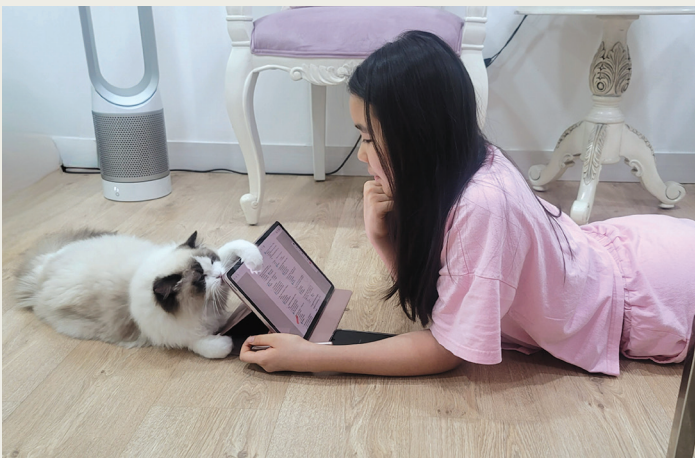
“여러분!! 저희 집 고양이 좀 보세요~”라고 매일매일 소리지르고 싶을 정도로 고상하고 착하며 말 잘 듣는 개냥이에요.



우리엄마 사진 찍으니 제가 포즈 좀 해주구요~



엄마...얼굴에 털 다 묻어도 괜찮아요?



언니~ 나랑 놀자~~



마냥이 너무 사랑해~~♡♡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4)

4. 제1차 성숙기(2003~2017년):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1)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동행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기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외교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으로 특징지어진다.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한 동반자라는 인식 하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크게 증대시킨다.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간 협력이 정치·경제·방산·문화·인적교류·국제무대 등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6년부터는 매년 양국 정상은 상호 방문하여 협력관계가 급속히 증진되었다. 2015년까지의 무역액 500억 달러 달성, 양국 간 ‘포괄적동반자협정’ (CEPA) 등 양국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정해지고 이의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했다. 한국 기업들은 에너지, 철강, ICT(정보통신기술) 등 투자와 협력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 한류에 대한 인식이 인도네시아 국민 저변으로 확산되면서 양국 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가 심화됐다.

2006년 4월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하산 위라유다(Hasan Wirayuda)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인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고 그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민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음을 선언하였다.

국민 방문 중에 원자력협력협정과 관광협력협정이 양국 대통령의 임석 하에 서명되었고, 부패방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및 산림투자

정개발체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민간기업 간 MOU 등도 체결되었다. 민간 조립투자 50만ha 조성을 합의하여 향후 한국 기업의 임업 부문 진출의 기폭제가 되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에 따라서 2007년 4월 산업자원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단장으로 한 20여명의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이 자카르타를 방문했다. 경제사절단은 에너지·자원, 무역·투자, 인프라, 방위산업 등 8개 분과별로 회의를 가졌고, 석유·가스·석탄 개발, 발전소 건설, 산업기술협력, 조립 투자 등의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2) 노무현 대통령 인니 방문과 유도요노 대통령 국민 방한 그리고 성과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발리를 방문했다. 이 방문은 한-아세안 FTA 추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 새로운 투자법이 제정되고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한국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진출 환경이 더욱 개선되었다. 2007년 7월 유도요노 대통령이 국민 방문하여 대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16개의 MOU가 서명되었고, 양국 간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투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1차 한-인니 포럼’이 개최됐다.

양국 정상 간 실질 협력 강화 합의에 따라 한국 기업의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성사됐다. 2007년 중부발전·삼탄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수출입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통해 약 7억4천만 달러 규모의 찌레본 석탄화력 발전소 민자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도 그해 11월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한도를 3억 달러로 대폭 증액하는 기본약정을 인도네시아 정부와 체결하였다.

양국 간 실질협력은 국방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인도네시아 국군통합사령관의 방한, 해병대사령관의 상호방문 등 고위급 인사 교류와 함께, 한국 LVTP-7A1 상륙돌격 장갑차 10대를 인도네시아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3) 이명박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의 만남: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재확인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 해 양국 대통령 간의 회동은 G-8 정상회의(7월 일본 도야코), APEC 정상회의(11월, 페루 리마) 등 다자 정상회의의 계기에 이루어졌다. 2009년부터는 양국 정상 상호 방문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재도약을 맞게 된다.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양국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한다.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9년 6월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유도요노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시기였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내 정치 문제로 여념이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도요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기로 결단을 내렸고, 이로써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더욱 부각되었다. 이 회의 계기에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직후 양국 대통령 내외는 예정에 없던 단독 오찬에 이어 서귀포 바다를 산책하면서 각별한 친분을 과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에 한-아세안/아세안+3/EAS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시 발리를 방문하였고, 유도요노 대통령과 양자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 결과, 그간 공동연구가 이루어진 한-인니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기로 합의하였다. 한-아세안 FTA에 이어 양국이 보다 심화된 양자 간 FTA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는 초석을 놓게 된 것이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의 산림 녹화 성공 경험을 아세안에 본격적으로 전수하게 되어 한국 산림정책의 지평을 넓히게 되었다. 특히 40여년 이상의 공고한 한-인니 산림협력 파트너십이 동 협정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 한국,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의 주파트너로 참여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얼마 앞둔 11월, 인도네시아 머라뻬 화산이 폭발하여 200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20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도요노 대통령은 또다시 서울로 향했다. 이는 신뢰에 기초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더욱 성숙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 민주주의 포럼(Bali Democratic Forum)을 앞둔 2010년 11월 하순, 이번에는 한국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안보상황이 긴장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포럼의 공동주제자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9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발리에 체류하는 동안 8개의 행사를 치렀다.

이렇게 축적된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친분은 결국

이날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MP3EI)에 주요 파트너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 참여 요청에 대한 구체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그 다음 해인 2011년 2월 하마 라자사 경제조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통상장관, 국방장관, 산업장관, 투자청장이 포함된 대규모 대통령 특사단이 방한하였다. 특사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시찰에 대통령 전용기까지 제공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2011년 5월에는 한-인니 경제협력실무 T/F가 발리에서 출범하여 한-인니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위한 MOU가 한국 지식경제부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간에 체결되었고, 11월에는 마스터플랜 협력을 위한 경제협력사무국이 인도네시아에 설치되었다.

★ ‘무궁화 대훈장’ 수훈 유도요노 대통령

2014년 11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대통령 재임기간(2004~2014년) 10년 동안 한-인니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외국 국가원수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박근혜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 수여(2014. 11.19)

유도요노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1년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P3EI)을 수립하고,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한-인니 경제협력사무국’을 설치했다. 또 양국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으며,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1,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한-인니 중장기 경제협력비전’에도 합의했다. 특히 유도요노 정부는 한국의 잠수함 3척과 T-50 고등훈련기 16대 구매 및 차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개발 등 방산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에 힘썼다. 2014년 11월 한국이 발족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이사회 의장 수임, 2년 임기의 의장에 취임했다.

한편 유도요노 대통령은 2012년 11월 8일 발리 민주주의포럼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양국 간 관계 증진에 대한 공로로 인도네시아 최고 훈장인 ‘빈방 아디뿌르나’ 훈장(Bintang Republik Indonesia Adipurna)을 수여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4년에 인도네시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 1949년 동부 자바주 빠짚탄 지역에서 퇴역 육군 준위의 아들로 태어나 1973년 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정계에 진출하면서 군을 떠날 때 4성 장군으로 예편했다.

2000년 압두라흐만 와히드 정권에서 에너지광물 장관으로 입각해 뒤 정치·안보조정장관으로 승진했지만 1년 뒤 탄핵사태에 직면한 와히드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요구를 거절하다가 해임됐다. 2004년 메가와티 정부에서 정치·안보조정장관으로 재임명됐지만 대통령과의 불화로 다시 물러났다. 이후 그는 민주당을 창당해 2004년 대선에서 출마해 인도네시아 제6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며, 2009년 대권에 다시 도전해 연임에 성공했다.

5) 박근혜 대통령의 인니 국민 방문: 상생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미래 동반자 관계 구축

박근혜 대통령은 발리 APEC 정상회의와 브루나이 ASEAN+3/EAS 정상회의 참석 직후 2013년 10월 10~12일 기간에 인도네시아를 국민 방문하였다. 방문 둘째날에 대사관 신청사 준공식 개막식과 기념식수, 한-인니 비즈니스포럼 참석과 대우조선해양 방문에 이어 한-인니 현대미술교류전을 관람하고 저녁에는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동포 350여명과 만남을 가졌다. 방문 마지막 날에는 영웅묘지 헌화를 시작으로 유도요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기념식수 및 국민만찬의 일정을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연내 타결에 합의하고 2015년 500억 달러, 2020년 1,0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방협력 협정>, <경제특구 개발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창조문화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실질협력 분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는 2012년 9월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자카르타에 설립되어 한국과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세안은 1967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5개국 간 합의한 방콕선언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후 아세안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순차적으로 가입하면서 10개국 지역협의체로서 틀을 갖추고 성장해왔다. 2022년 말에는 동티모르를 11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여기로 했다.

아세안은 다자주의에 기반하여 설립된 지역협의체이며, 설립 이후 지난 50여년 간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아세안 회원국들간 통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분쟁이나 금융위기, 재난 대응,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슈들에 있어서도 아세안 차원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국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다방면에 걸쳐 아세안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아세안과의 FTA는 2007년에 발효돼 상품, 서비스 협정에 이어 2009년 투자 협정이 발효되었다. 한-아세안 관계는 2010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다. 무엇보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교역대상 지역이자 건설 수주 대상 지역이며, 한국 또한 아세안의 제5위 교역대상 국가이다. 인적교류도 활발하여 코로나 직전인 2019년 한국 국민 1,000만명이 아세안 국가들을 방문하였고, 같은 해 아세안 국민 270만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2020년초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2022년 초반까지 각종 회의, 행사나 인적교류가 어려웠으나 이후 각국의 외교활동들이 정상화되는 추세에 있다. 2022년 11월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3년만의 한-아세안 대면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인도-대평양 전략을 천명하면서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협력 원칙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 추진을 위해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아세안 중시 외교기조를 강조함과 아울러 아세안과의 전략적,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러한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강화·발전 의지를 환영하였으며, 디지털, 기후변화와 환경, 전기차 등 아세안의 미래 발전 수요를 반영하는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방향을 높이 평가하였다. (끝)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상업법원, 노동법원, 행정법원, 세무법원, 종교법원, 부정부패 범죄법원, 군사법원, 인권법원, 미성년자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환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급 법원 간에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할 하에 있을 때에, 세무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1945년 헌법, 국민협회의 결의사항,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행정부의 긴급 조치령, 정부령, 대통령령, 장관령, 청장령, 주 조 례, 주지사령, 시/군 조례, 시장/군수령,

구청장령,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사면을 주기 전에 대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의회, 국회, 지방대표 국회, 대통령, 부통령, 헌법재판소, 대법원,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하여 법률소견 제도는,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원장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었는지 여부, 즉, 법률의 위헌 여부를 재판하며,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국회에서 추천한 3명, 대통령이 추천한 3명,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끄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 Museum Di Tengah Kebun
- Dia.Lo.Gue Arts Space
- Duta Fine Art Foundation

추은진 (한인니문화연구원 팀장)

비가 올 듯 말 듯 촉촉한 토요일 아침, 한인니문화연구원 (IKCS)에서 진행되는 339회 문화탐방은 자카르타 남부의 끄망(Kemang) 지역에서 열렸다. 끄망 지역은 구석구석 작은 소품 가게와 갤러리, 가구점들이 많은 곳으로 외국인이 자주 찾는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즐비해 밤이 되면 인도네시아 젊은이들로 붐빈다. 아쉽게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우기철 상습 침수지역이기도 하다. Kemang이라는 이름은 습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망고 나무의 한 종류에서 따왔다고 한다.

정원으로 둘러싸인 도심 속 숨겨진 작은 박물관과 문화예술공간, 그리고 갤러리를 순회하는 이번 탐방은 인도네시아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연구원 윌리엄(William) 국제교류팀장과 김경애 선생님께서 통역과 해설에 도움을 주셨다.

Museum Di Tengah Kebun



첫 번째 탐방지인 Museum Di Tengah Kebun은 2013년 박물관 평가에서 최고의 개인 박물관으로 선정된 곳이다. DKI 지방정부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두 번이나 상을 받은 곳으로, 인도네시아 및 해외 예술 작품 및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은 3,500m² 면적의 부지에 지어졌는데, 입구가 잘 눈에 띄지 않아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이다.

전시 공간이자 거주지인 Museum Di Tengah Kebun은 소유주의 의도대로 건축되었고 전시되어 있다. 역사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 80,000개의 벽돌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중 65,000개는 바타비아의 동인도 회사 건물에서 가져왔으며, 15,000개는 1896년에 지어진 기상청 건물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집 안 문들의 경첩은 쥘리웅(Ciliwung)강에 있었던 부킷 두리(Bukit Duri) 여자 교도소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헬레니즘 석가모니 상]
Gandara지역, 2세기 경
가장 인상적이었던 유물.
석가모니의 모습을 그리스인들의
눈으로 표현한 모습이다.
동양의 사물과 신비주의를 서양
의 스타일과 기술로 결합한 것
으로 해석된다.

Museum Di Tengah Kebun의 주인인 중부 자바 출신의 샤리알 잘릴 (Sjahrial Djalil, 1940~2019)은 인도네시아 현대 광고계를 이끌어간 중요한 인물로, 광고대행사 Ad Force Inc.를 설립한 사람이다. 역사를 좋아하고 고대 유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30대때부터 취미로 유물을 수집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본인이 해외 여행 중에 직접 구입하거나 유럽, 미국, 홍콩,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경매를 통해 모았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수집품을 함께 즐기기를 원했던 Djalil은 자신의 집과 컬렉션을 공개하기로 결정, 1990년 자신의 거주지였던 이 곳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였으며, 현재 이 곳에는 그가 세계 63개국과 인도네시아 21개 주로부터 수집한 2000여점의 역사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수집품들이 전시 및 보관되어 있다.

Museum Di Tengah Kebun은 내부 사진 촬영이 불가하며,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하고, 개인 가방도 맡겨야 한다. 내부의 모든 가구 및 소품 하나하나가 오랜 역사를 지닌 전시품이기 때문이다. 집 내부의 거실, 식당, 서재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두 전시실로 사용되며 그 안의 전시물 중 Sjahrial Djalil이 가장 우선시하는 수집품의 이름을 따서 전시실 이름을 붙였다.

각 전시실마다 다양한 종류의 수집품들을 접할 수 있었다. 미국 한 박물관 전시물과 한 쌍을 이룬다는 중국 한나라 시대의 테라코타, 이집트 무덤에서 가져온 50여개 세트 중 하나인 작은 셉티 수호석상, 모로코에서 발견된 2억 3천만년전 쥐라기 시대의 조개 화석, 독일 프로이센 빌헬름 2세의 초상화 등등 눈과 귀를 집중시키는 전시품들이 많았다. 해외에서 온 수집품 외에도 솔로(Solo) 왕궁에서 가져온 침대, 중부 자바(Jawa)에서 발견된 금강수보살상, 토라자(Toraja) 지역에서 가져온 관 뚜껑 등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온 것들 또한 다양했다.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발견된, 여러 시대를 망라한 갖가지 종류의 수집품들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다양성’을 강조하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이념과 닮아 있어서 Museum Di Tengah Kebun의 매력을 한 층 더 느낄 수 있었다.

관람의 마지막 순서인 뒤뜰은 ‘가네샤(Ganesha) 정원’이라 불린다. 이름대로 그 중앙에 거대한 가네샤 상이 있는데, 9세기 중부 자바의 유물로 그 시대의 작품 중 가장 큰 것이라 한다. 미완성된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이 박물관에서 가장 값비싼 소장품으로 알려졌는데, Djalil은 이 석상을 얻기 위하여 이것이 발견된 지역에 학교를 건립해 주었다고 한다. 정원은 가네샤 이외에도 136개 종류의 꽃, 1200그루 이상의 야자수, 109개의



다양한 크기의 돌로 꾸며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 쪽에는 박물관의 주인이자 2000여점의 유물들을 수집한 Sjahrial Djalil의 묘지가 자리잡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박물관을 오래 즐기지 못했다. 파킨슨 병을 앓았던 그의 침실 전시실 천장에 그려진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림은 투병 중이던 그를 위한 치료목적의 그림이라 한다. 2019년 눈을 감은 Djalil은 그의 바람대로 자신의 집, 박물관 안 정원에 자리하게 되었다.

Dia.Lo.Gue Arts Space



다음 탐방지는 맛있는 음식과 예술 작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Dia.Lo.Gue Arts Space이다. 음식과 예술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주제이지만, 사람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공통점에 착안해 만들어진 곳이다. 자카르타 지역 베타위(Betawi) 언어로 그/그녀(Dia), 당신(Lo), 나(Gue)라는 의미로 지어진 낭만적인 이름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대중의 참여, 예술가들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예술 플랫폼을 지향함을 반영한다고 한다.

코망 남부에 위치한 Dia.Lo.Gue Arts Space는 인도네시아의 유명 건축가 안드라 마틴(Andra Martin)이 오래된 사무실 건물을 재디자인하여 완성한 작품으로 1999년에 이미 건축상을 받았다고 한다. Arts Space로는 2010년에 오픈했으며, 빈 공간의 중요성

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으로, 전시되는 작품에 따라 건물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현재는 “Cerita Kaca” 라는 제목으로 유리페인팅 전시가 진행중이다. 유리페인팅은 14세기에 유럽에서 시작했으며, 17~18세기 왕과 귀족들의 후원으로 중국·인도·중동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19세기 에는 무역로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에는 유리페인팅이 1840년대에 중국으로부터 발리에 처음 들어왔으며, 이후 자바에 전파되었으며 짜르본이 그 중심이 된다. 특히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신질서 엘리트들의 지원과 중산층의 관심으로 전성기를 이루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심이 부족해졌고 예술가 수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Dia.Lo.Gue Arts Space를 운영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유명한 탄질(Tanzil) 선생님과 부인 엔젤 여사는 이 전시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민속예술인 유리페인팅의 역사를 알리고 문화유산으로서 그 기법을 보전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5년 동안 준비하고 기획하였다.

유리페인팅은 일반페인팅과는 다르게 유리의 뒷면에 그림을 그린다. 우리가 감상하는 것은 그려진 뒷면이 아닌 앞면이라는 것이 독특하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칠하고 세밀하게 묘사하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쌓아 올리는 채색이 아니라 반대로 강조되는 부분을 먼저 그리고



그 뒷배경을 칠하는, 부분에서 전체로 덮어 올리는 채색이 이루어진다. 독특한 기법, 일반적이지 않은 재료로 완성된 그림들은 명암이 표현되지 않아 한 컷의 Cartoon(만화) 같은 느낌이 들었다. 또한 유리를 사이에 두고 감상하는 그림은 얇은 입체감이 보이면서 그 자체로 액자에 넣은 것 같이 보였다.

여러 수집가와 박물관으로부터 엄선해 가져온 유리페인팅은 4월 11일 까지 전시된다. 작품들은 여러 테마로 나뉘어 구역별로 전시되었는데,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 외양, 중동 이슬람 문화와 인도네시아 현지 문화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종교적 테마, 민속 예술, 유리페인팅의 다양한 기능 등이 그 주제이다.

Duta Fine Arts Foundation

마지막 탐방지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 컬렉션을 소유한 Duta Fine Arts Gallery 이었다. 인도네시아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며, 한인니문화연구원 관람시에는 특별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박물관 전시관까지 개방해주시기도 한다.

주차장에 내려 아치형 정문을 지나면, 마치 지중해의 집처럼 붉은 기와 지붕과 베이지색 벽으로 된 건물이 등장한다. 왼쪽 건물은 상설 전시실, 길을 따라 쪽 들어가 건물 사이를 지나면 아름다운 중앙 뜰이 나오고 그 뒤에 기획 전시실이 있다. 정문 오른쪽에는 상당한 규모의 아랍풍 대리석 건물이 있는데, 그 곳이 바로 오늘처럼 특별한 날에만 개방되는 수장고이다.



1986년 3월 당시 문화교육부 장관이었던 파웃 하산티(Fuad Hasanti)에 의해 개관된 Duta Gallery는 40년 가까이 국제적인 예술가의 작품이나 역사적인 작품을 전시, 여러 예술품과 인도네시아 예술에 관한 기록을 수집해 오고 있다. 솔로 출신으로 에너지 회사 회장인 Wiwoho Basuki와 꽃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인 부인 Kartini Basuki가 갤러리를 소유하고 있다.

두타 재단의 이사인 하멜(D.Hamel)을 빼놓고는 두타를 이야기할 수 없다. 화가이자 큐레이터, 작가이면서 배우인 프랑스인 Hamel은 1986년 갤러리 설립부터 함께했던 인물이다.



1970년대에 인도네시아로 건너와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해 예술을 소개하는 운동을 주도하였는데, Duta Gallery 역시 인도네시아 대중에게 예술 작품을 홍보하고 지역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재단이다. Hamel은 1980년대에 많은 인도네시아 영화에도 출연하였으며, 50여권의 책을 출판한 다작 작가이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강조하였으며, 과거 식민지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정신과 전통이 살아있는 인도네시아를 높이 샀다. 두타에서 키운 많은 작가 중에서도 존 반 데어 스테렌(John van der Sterren)은 대중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작가이다.

상설 전시실을 지나, 기획 전시실 그리고 특별 수장고로 이어지는 관람길에는 많은 그림들과 조형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여자친구를 모델로 한 Trubus Soedarsono의 흉상에서는 손끝 하나하나의 애정이 느껴지는 듯했고, 피카소의 큐비즘을 연상시키는 현대적 감각의 그림, 인도네시아인들의 일상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등 개성 넘치는 인도네시아 작가들의 작품들이 흥미로웠다. 바틱 그리기를 즐겼던 Sukanto의 민화 풍 그림은 바틱의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전통적 주제를 새로운 양식과 결합하려는 시도가 보였으며, 서민들의 일상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Bonny의 작품들은 삶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를 사랑한 외국 작가들의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식민지 시절 예술 활동이 어려웠던 인도네시아인들을 대신하여 이 땅의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담아왔다.



유독 눈길이 가는 그림이 있었다. 네덜란드 출신 화가 Pierre Guillaume은 발리의 시장과 상인, 모래사장의 아이들, 관광객 등 해변의 모습과 자연의 논밭을 주로 그리는데, 그가 그려낸 알록달록한 자연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자연은 이렇게 따스하지 않다. 사시사철 싱그러운 푸르름을 넘어서, 약간은 단조로운 푸르죽죽함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화려한 색감으로, 아련함과 향수를 자아내며, 은근히 타오르는 뜨거움을 이끌어내는 것은 인도네시아를 향한 Guillaume의 애정일 것이다.

제 339회 문화탐방은 우리 주변의 역사, 문화, 예술을 찾아보는 여행이었다. 가까이에 있다고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 다가가 들여다보아야 보인다. 보고 느껴야 알게 되고, 그래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꼬망 곳곳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 나선 오늘 탐방이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다가가는 큰 한 걸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실무 중심 IBI 대학을 소개합니다



코리아코너 개설... 한국인 학생에 특별 장학금 제공
IBI 대학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립 고등교육기관이다. IBI 대학의 공식 명칭은 ‘Institut Bisnis & Informatika Kosgoro 1957’ 이다.

한인들에게는 생소한 IBI 대학은 남부 자카르타 렌땡 아궁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경제, 사회과학 및 컴퓨터 등 3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는 단과대학으로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강사진을 확보하는 등 개교 이래 지속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1990년에 개교한 STIMA (Sekolah Tinggi Ilmu Manajemen Kosgoro) 대학이 2012년 IBI 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인도네시아 정당 골카르의 산하 단체인 코스고로 (KOSGORO 1957)가 재단이다.

하스완 유나즈 (Dr. Haswan Yunaz, M.Si, MM) IBI 총장은 지난 2월 16일 데일리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과정에서 영어 교육을 강화해온 IBI 대학이 코리아코너 (Korean Corner)를 공식 개설하고, 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강화해 현지 한국 기업에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하스완 총장은 이어 “신한대와 가야대 등 한국의 대학교와 교류하고 있다”며 “올해 7월에 한

국의 대학과 공동 학술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순 코리아코너 원장은 “IBI 대학은 규모는 작은 대학이지만 성실한 교직원과 알찬 운영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며 “IBI 대학에 한국인 학생 4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한국인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무 중심의 교과과정으로 구성된 IBI 대학은 △경제학부에 경영학과와 회계학과 △사회과학학부에 커뮤니케이션학과와 기업관리학과 △컴퓨터학부에 정보기술학과와 정보시스템학과 등이 있다. 강의는 주간뿐만 아니라, 직장인을 위한 야간과 토요일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

이 대학 졸업생들은 민영기업, 은행, 공무원으로 취업하거나 개인기업을 운영한다.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	-----------------------------------	-----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	------------------------	------------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	--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 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 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550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14080
(Toll Jabotabek)

교통사고 Traffic Accidents.....1500669
NTMC(SMSCenter).....9119

열차시간안내.....121
WAKAI 121.....081111 2111 121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널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88

수도고장 문의 (Palyja Jakarta).....1500223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	361)445	5037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실**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변호사 이웅



**인니 거주자/비거주자 관련 세무 소송 전문
대한민국 법원 비거주자 판정 다수 승소 경험**

변호사 약력
1989 서울대 입학
1997 사법시험 합격 (39회)
2000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
2023 현재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파트너)

법무법인 새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4층 (서초동, 케이원빌딩)
T. (한국)+82-10-3051-3670
(인니)+62-857-7577-1114
E. sabub89@hotmail.com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르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센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항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짜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	-----	------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짜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뿔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딤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딤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쫘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뽕뽕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 식당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마골	021	7278 7789
가야성	725	7373
가호(MOI)	0811	9966 677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SMILE KIMBAB
Living World Alam
Sutera, UG floor,
Serpong Utara,
Tangerang Selatan
081292184018

SMILE KIMBAB

경복궁(짜부부르)	021 3885 304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감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함	021 5081 3656
웅대리 (SCBD)	021-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복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예원	021-7212-0533
찬찬	0812-1060-4848
숙달	0821-4007-7256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하나	0254-393 2146
하누 (정육식당)	0877 7529 8482
한상 (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2442-6092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티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레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트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레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람)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샌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JASMIN HAIR SALON

Jasmin Hair Salon 1 (한국 미용실)
 Darmawangsa Square 1F G46 Jakarta Selatan
 영업시간 09:00~19:00 Tlp. 021 7280 0019/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현지 샬롱)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0225

Jasmin Hair Studio 3 (맛사지, 네일 전문점)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6530
 Darmawangsa Square GF (Studio 2 G40, Studio 3 G54)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렉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게스트하우스 08128051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널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포르 항공 570 4411

오롬컨설팅
PT. 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u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021) 2245 5879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종교 단체**

<기독교>

-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용) 0811-194-8291
-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 자카르타 중앙 교회
(어성호) 0813-8103-9768
-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 찌프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반 등

- 반등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 반등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 반등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 반등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단&발리

- 메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칼리만탄

-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 **호텔**

- 그랜드멜리아 526 8080
- 만다린 314 1407
- 물리아 574 7777
- 샹그릴라 570 7440
- 싸이드자야 570 4444
- 하야트 390 1234
- 크라운플라자 526 8833
- 술탄 573 8011
-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 굿-머니 5793 9990

-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 끌라빠가징 453 1166
-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 뚜나스신암 797 6105
-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 환전 712 8556

반등 (지역번호 022)

● **식당**

- 뉴캐슬식당 201 5007~8
-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짜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분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에블렛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수출·무역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HP. +62-816-873-176, +62-816-1390-333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E-mail. 3spearl@hanmail.net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82-10-5509-7751, +82-10-9824-885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3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김 은 수	0812-8811-1733
		사무차장	정 상	0815-4650-3667
4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5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6	메단한인회	회장	홍 재 권	0812-8219-8638
		총무	안 의 현	0811-610-3332
7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10	족자카르타한인회 [0274) 497-761]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1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3	마카사르슬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4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5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16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www.sticorp.co.kr

THEP

TRASINDO

SAMINDO

STI Indonesia

PSG

CEP

SBS

DONGHAE

SIMS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ST International

Yeong Yang Wind Power

MINTEC

SRT

SRT

ABM

KIDECO